

## 『사랑』과 안식교\*

유 승 환\*\*

### 요약

이 글은 『사랑』에 나타난 안식교를 도산을 환유하는 기호로 바라보며, 이러한 관점에서 『사랑』의 플롯을 다시 읽음으로써 특히 도산 사후 1938년의 이광수의 전향과 관련하여 『사랑』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제시하려고 하였다. 이 글은 먼저 서북 지방의 애국계몽 운동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진 한국 안식교의 초기 전파 과정 및 상해 임시 정부 시절 이루어진 이광수의 안식교 체험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랑』에 나타난 ‘안식교’가 도산을 환유하는 기호라는 점을 밝혔다. 이때 『사랑』은 도산의 환유로서의 안식교도 순목을 통해 제시되는 ‘도산적인 것’을 도산이 아닌 춘원 자신의 사상 아래 재배치함으로써 ‘도산적인 것’의 최소한의 유지 가능성을 모색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랑』은 이 과정에서 모색되어야만 했던 이광수의 내면적 혼란을 여실히 드러내는 바, 이는 도산의 사후 이광수가 가지고 있었던 전향에 대한 고민의 복잡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주제어: 이광수, 『사랑』, 안식교(재림교), 도산, 환유, 전향

### 목차

1. 『사랑』을 읽는 두 가지 관점
2. 도산의 환유로서의 안식교라는 기호
3. ‘도산적인 것’의 재배치와 전향의 논리
4. 결론을 대신하여: 『사랑』과 『도산 안창호』

\* 이 논문은 2020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

## 1. 『사랑』을 읽는 두 가지 관점

이광수의 『사랑』(1938~1939)<sup>1)</sup>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적인 작품이다. 첫 번째는 이 작품이 법화경의 논리를 바탕으로 불교와 기독교를 통합한 새로운 사상적 입각점을 통한 초월적인 '사랑'의 논리를 제시하려고 한 작품이라는 점, 두 번째는 1938년 상반기에서 1939년 초순에 걸친 이 작품의 집필 시기가 이광수의 정신적 지주였던 도산 안창호의 죽음(1938.3) 및 춘원 스스로가 깊게 연루되어 있던 동우회 사건(1937~1941)으로 인해 이광수가 향후 진로를,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1939년 이후 본격화된 전향의 문제를 고민하던 시기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사랑』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사랑』의 이러한 두 가지 문제적 지점 중 어느 쪽에 주안점을 두는지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나누어진다. 『사랑』에서 기독교 윤리와 불교 사상을 아우르며 제시하고 있는 정신적이며 초월적인 '사랑'의 논리가 가진 의미와 깊이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사랑』은 이미 이광수의 10대 시절부터 시작되어, 이광수 문학 전반에 다대한 영향을 미쳤던 이광수의 종교적 사유가 집대성된 기념비적 작품으로 이해된다. 불교적 상호텍스트성을 바탕으로 『사랑』의 불교 텍스트로서의 성격에 주목한 정진원의 논의<sup>2)</sup>, 초기 이광수 문학에 드러난 기독교에 대한 사유를 검토하며 『사랑』을 종교적 다원주의의 발현으로 평가한 송명희의 논의<sup>3)</sup>, 불교와 기독교의 통합 및 과학적 인과론과 종교

1) 잘 알려져있듯이 『사랑』은 박문서관 『현대걸작장편소설전집』 제1권으로 기획 출판된 전작 장편소설 『박문』 3, 박문서관, 1938.12, 광고 참조)으로, 총 2권으로 간행되었다. 1권(전편)은 1938년 10월 25일에 발행되었으며, 2권(후편)은 1939년 3월 3일에 발행되었다. 이 글은 박문서관 『사랑』 전편 제9권(1941.6.5. 발행), 후편 초판(1939.3.3. 발행)을 자료로 삼는다. 『사랑』 전편의 초판 발행일은 9권에 포함되어 있는 판권면을 참조했다.

2) 정진원, 「춘원 이광수의 소설 〈사랑〉의 불교적 상호텍스트성」, 『텍스트언어학』 20,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06.

3) 송명희, 「이광수의 기독교 사상과 종교적 다원주의」, 『한국문학논총』 46, 한국문학회, 2007.

적 인연론의 화해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사랑』의 사상적 고차원성을 격찬한 윤홍로의 논의<sup>4)</sup> 등을 대체로 이러한 범주의 논의로 묶을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의 논의는 『사랑』이 범화경의 사상을 바탕으로 기독교와 불교를 아우르는 “종교 통합적 논리”를 중심으로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 이후 파시즘 체제가 강화되고 있었던 “위기의 시대적 국면에서 창출된 현실 초극의 실험적 산물”<sup>5)</sup>로서 이광수 문학 전체를 통틀어 “가장 높은 문학적 가치를 함축하고 있는 작품”<sup>6)</sup>이라는 방민호의 논의에서 가장 명료한 표현을 얻는다. 또한 이러한 방민호의 논의는 ①‘불교’에 대한 이광수의 사유가 이학수, 백성옥 등 민족주의적 불교지도자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이라는 점 ②『사랑』에 나타난 종교 통합에 대한 사유가 「애욕의 피안」(1936) 등 이전 작품들과 연속성을 가지며 “의식적이며 방법론적”<sup>7)</sup>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여, 『사랑』을 그 이전의 이광수의 문학적·사상적 실천 및 모색과 연관지어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맥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반면 『사랑』의 또 다른 문제적 측면, 즉 이 작품이 이광수가 전향을 심각하게 고민하던 시기에 쓰였다는 점에 주목하는 논자들의 경우, 이 작품은 1939년 이후 노골적인 친일로 치달은 이광수의 전향 논리가 구성되는 과정을 드러내는 텍스트가 된다. 『사랑』에 나타나는 의학적 실험을 인체 실험으로 규정하며, 이러한 실험의 과정에서 작중 인물 사이에 견고한 위계가 생긴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사랑』을 비롯한 이광수의 1930년대 소설들을 “총동원, 전쟁, 불교를 심미적으로 매개하는 식민지산 파시즘의 핵심”<sup>8)</sup>을 제시하는 작품으로 평가하는 이경훈의 논의, 『사랑』에 나타난 ‘탈

4) 윤홍로, 「『사랑』과 병의 치유」, 『춘원연구학보』 5, 춘원연구학회, 2012.

5) 방민호, 「이광수 장편소설 『사랑』에 나타난 종교 통합적 논리의 의미」, 『춘원연구학보』 2, 춘원연구학회, 2009.12, 133-134면.

6) 위의 글, 105면.

7) 위의 글, 116면.

8) 이경훈, 「인체 실험과 성전」, 『동방학지』 117,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2, 242면. 이경훈의

성화'된 여성인물 및 '인과율'의 논리에서 '총후봉공'과 '내선일체' 담론의 징후를 발견하는 김경미의 논의<sup>9)</sup> 등을 이 부류로 묶을 수 있겠지만, 보다 중요한 논의는 『사랑』의 플롯이 “애정삼각관계에 인과적 인연의 논리와 자기희생적인 사랑의 역설이 자리하고” 있는 독특한 형태를 취하며, 다시 이를 “민족운동의 보존이라는 명분 아래 총독부예의 전향이라는 모순적인 선택을 해야 했던 이광수가 그러한 자신의 정치적 행로를 납득시킬 만한” 서사적 논리의 구축을 위한 것으로 평가하는 최주한의 논의<sup>10)</sup>이다. 또한 최주한은 이광수를 포함한 동우회의 전향 과정과 『사랑』과의 관계를 검토<sup>11)</sup>하거나, 『사랑』을 직접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1941년 이후 이광수의 불교적 사유가 범화경을 매개로 일본의 국가주의적 불교 사상인 니치렌주의(日蓮宗)와 결합하고 있는 양상을 근거로 이광수의 범화 사상이 그 근본적인 취약성으로 인해 결국 1939년 이후 이광수의 전향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전락해버렸음을 지적하는 등<sup>12)</sup>의 후속 논의를 통해 『사랑』을 이광수의 전향과 연관지어 읽을 수 있는 중요한 맥락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사랑』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한편으로는 불교적 인연론을 중심으로 한 『사랑』의 종교 통합적 논리가 가진 의미를 천착하는 방향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이광수의 전향 과정과 논리를 재구하는 방향으로 나누어 전개되었다. 이때 이 글은 정교한 플롯 분석을 통해 『사랑』으로부터 이광수의 전향 논리를 읽는 최주한의 논의(2005)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

---

논의는 『사랑』과 함께, 「무정」, 「재생」, 「유정」, 「무명」, 「육장기」 등 이광수의 주요 작품들에 반영된 위생·우생학·의학적 실험(인체실험)이라는 소재를 분석하며 제시된 것이라는 점을 부기해둔다.

- 9) 김경미, 「이광수 연애소설의 서사전략과 민족담론」, 『현대문학이론연구』 50, 현대문학이론학회, 2012, 3장.  
 10) 최주한, 『제국 권력에의 야만과 반감 사이에서』, 소명출판, 2005, 150면.  
 11) 최주한, 「『사랑』(1938), 또 하나의 전향서」, 『춘원연구학보』 13, 춘원연구학회, 2018.  
 12) 최주한, 「이광수의 불교와 친일」, 『춘원연구학보』 2, 춘원연구학회, 2009.

서, 동시에 특히 작품의 주인공 순옥의 종교로 설정된 ‘안식교’라는 기호의 의미를 중심으로, 『사랑』에 나타난 전향기 이광수의 내면풍경과 그의 의미를 보다 섬세하게 읽어내고자 한다.

이는 이 글이 다음과 같은 관점을 취한다는 뜻이다. 첫째, 이 글은 『사랑』에 나타난 ‘종교 통합적 논리’를 염두에 두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이 작품을 1938년 3월 도산의 사망 이후 이광수가 마주해야만 했던 전향이라는 정치적 선택에 대한 고민과 연관 지어 읽으려 한다. 이는 『사랑』의 집필 기간이 정확히 도산의 죽음 직후부터, 이광수의 최초의-이광수의 고백<sup>13)</sup>에 따르면-대일 협력 행위인 1939년 3월 황군위문작가단 결성에 참여한 일 사이에 놓인다는 점과 함께, 이 글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서 ‘안식교’라는 기호가 도산 혹은 도산적인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둘째, 이 글은 『사랑』을 읽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으로 사건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중심으로 소설이 구성되는 과정, 다시 말해 플롯 분석을 취하려 한다. 셋째, 이 글은 최주한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사랑』의 플롯에 있어 가장 특징적인 지점을 안빈 대신 허영과 결혼하는 작중 주인공 ‘순옥의 모순적인 사랑’<sup>14)</sup>으로 파악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플롯이 구성되는 과정에 있어 ‘안식교도’ 순옥과 ‘법화경 행자’ 안빈의 마주침을 가능하게 했던 논리와 그 의미에 주목할 것이다. 특히 세 번째 관점과 관련해, 몇 가지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사랑』이 그간의 이광수 문학과 무엇인가 다르다는 점은 당대 평단 및 독서계에서도 명확히 감지되었던 문제이다. 이 점에서 김문집은 『사랑』을 “春園의 第三期”<sup>15)</sup>의 시작을 알리는 작품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거니와, 당대 독서 대중<sup>16)</sup>에게 무엇보다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사랑』의 주

13) 이광수, 「나의 고백」, 『이광수 전집』 7권(2판), 삼중당, 1976, 274면.

14) 최주한(2005), 앞의 책, 149면.

15) 김문집, 「再生李光洙論」, 『문장』, 문장사, 1939.5, 155면.

16) 지금까지 검토한 선행 연구들과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권보드래는 『흙』, 『사랑』 등의 이광수의 장편소설이 1960년대 독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은 작품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사랑』의 서

인공 안빈과 석순옥의 사랑이 보여주는 도저한 정신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사랑』에 나타난 “至高”한 사랑에 대한 생각은 “하늘 사람의 사랑이 아닌 사랑을 찬양”한 “「개척자」니 「재생」이니 「무정」”<sup>17)</sup> 같은 것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감지되었던 것이다.

김동인의 경우, 이러한 변화를 이 시기 이광수의 정치적 결단의 문제와 결부시키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사랑』의 발간 직후, 아마도 『사랑』을 발간한 박문서관의 요청에 의해 작성된 서평으로 보이는 글에서 김동인은 『사랑』의 집필이 한창이던 1938년 여름 이광수를 만난 기억을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그날 打診한 바에 의지하건대 春園은 복잡미묘한 線上에서 煩悶하고 있는것이였다./그때의 春園의 健康으로는 장차 環境이 惡化되는 경우에는 도저히 生命을 유지할 수 없다. 이러한 一線을 그어놓고 左할까 右할까, 주저하고 고민하고 하는 것이 분명하였다. …(중략)… 그뒤 나는 때때로 생각하였다. 그때 그런 巨大한 苦悶(思想的苦悶이 아니라 去就에 대한 苦悶)가운데서 執筆中인 作品이 어떤것이 될까.<sup>18)</sup> (밑줄은 인용자, 이하의 인용에서도 동일함)

이광수를 찾아간 김동인이 발견한 것은 “거취에 대한 고민”, 즉 동우회

---

사적 구조와 특징을 1960년대 개발독재시대 대중독자들의 심성구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흥미롭게 읽어내고 있다. (권보드래, 「저개발의 멜로, 저개발의 송고」, 『상허학회』 37, 상허학회, 2013) 당대 『사랑』이 독자들의 큰 호응을 받은 작품이라는 점은 기존 논의에서 여러 차례 반복된다. 앞서 언급했듯 『사랑』을 이광수의 전향의 합리화 과정으로 이해하는 최주환은 전향을 고민하던 이광수의 내면적 고민이 전시 동원체제를 마주한 당대 독자들의 심성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보며, 이 점에서 『사랑』이 대중적으로 큰 호응을 얻은 이유를 찾고 있기도 하다. (최주환(2018), 앞의 글, 195-198면)

17) 「李光洙氏의 戀愛觀, 至高한 부처님 사랑의 境地에까지」, 『삼천리』 10(12), 삼천리사, 1938.12, 53면.

18) 김동인, 「春園과 사랑」, 『박문』 3, 박문서관, 1938.12, 10-11면.

사건이 한창 진행 중인 와중에 자신의 정치적 선택을 고민하는 이광수의 모습이었고, 김동인은 이러한 “거대한 고민”이 『사랑』에 반영되어 나타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정작 『사랑』 전편(前篇)을 읽어본 김동인은 『사랑』에서 서사적 논리의 파탄만을 발견한다.

安醫師가 「정신적으로 사랑」하는 石某라는 女子가 不幸한 行路를 밟으려 할때에, 그 行路를 밟으면 分明히 石女가 不幸할줄을 번히 알면서도 安醫는 「그것도 運命이다」하고 一句의 助言도 안하는等은 矛盾의 큰者라 본다.<sup>19)</sup>

『사랑』의 서사적 구조가 그 개연성을 잃고 있으며, 때문에 『사랑』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대화형식으로 된 安醫의 설교”<sup>20)</sup> 밖에 없다는 김동인의 지적은 대체로 「춘원연구」 등에서 개진되는 이광수에 대한 자신의 비판을 되풀이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사랑』의 서사적 파탄을 “불행한 행로”, 즉 허영과의 결혼을 감행하는 순옥이의 모습에서 찾고 있다는 것은 근대소설가로서의 김동인이 가진 예리한 감각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여기서 김동인이 순옥이 안빈이 아닌 허영과 결혼한다는 사건 전개 of 틈새를 메꿀 수 있는 것이 “그것도 운명”이라는 안빈의 생각, 즉 “前生이 있고 死後의 來生이 있고” “三生뿐 아니라, 억천만겁을 還生 또 還生”<sup>21)</sup>한다고 하는 안빈의 불교적 사유 밖에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안빈의 사유 자체를 “처음부터 矛盾”<sup>22)</sup>이라고 일축하는 근대작가 김동인의 태도는 그가 제기했던 문제, 즉 전향에 대한 이광수의 고민이 『사랑』을 통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더 이상 탐색할 수 없었던 한계와 관련된 것이지만, 그럼에도 김동인은 『사랑』을 쓰던 당시 정치적 선택에 대

19) 위의 글, 12면.

20) 위의 글, 12면.

21) 위의 글, 11~12면.

22) 위의 글, 12면.

한 이광수의 고민과 이를 돌파하기 위한 이광수의 종교적 사유가 『사랑』의 구성과 결부되는 지점을 직감적으로 포착했던 것이다.

『사랑』의 독특한 종교적 사유는 김동인의 지적과는 반대로 안빈의 지루한 설교에서가 아니라, 소설의 구성에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물론 이광수의 소설에서 종교적 사유, 특히 기독교적 사유가 소설의 구성 원리가 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이광수에 대한 흥미로운 작가론을 참고하여 애정 갈등에 기반하면서도, 대립의 한 축에 기독교적 윤리의식에서 비롯한 가치를 배치하는 ‘풍속적 멜로드라마’<sup>23)</sup>를 이광수 소설의 주요 유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면 『사랑』의 특성은 똑같이 삼각관계에 기초한 갈등 속에 주인공이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결혼을 감행하게끔 하면서도, 그 구성 원리가 이전의 ‘풍속적 멜로드라마’와는 전혀 달라졌다는 점에 있다. 가령 「재생」에서 봉구 대신 백윤희를 선택하는 순영의 선택은 기독교 윤리에 대한 철저한 위반으로, 이어지는 순영의 타락과 몰락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설정되지만, 『사랑』에서 안빈 대신 허영과 결혼하는 순옥의 결단은 그 자체가 숭고한 사랑의 실천으로서 서사적으로 정당화·최주한의 표현을 빌면 ‘합리화’<sup>24)</sup>-된다. 그리고 이러한 구성 원리의 변화는 다시 이러한 구성 원리를 추동한 이광수의 종교적 사유 자체의 변화에 기인한다.

김동인이 거칠지만 정확하게 지적한 것과 같이 『사랑』에서 순옥과 허영의 결혼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순옥이가 허영씨 때문에 마음 고생을 하는 것도 과거에 지어진 어떤 원인의 결과”<sup>25)</sup>라는 안빈의 불교적 인과론이라고 볼 때, 『사랑』의 구성 원리로서의 이광수의 종교적 사상의 변화는 순옥이 대표하는 기독교 윤리에 기반한 삶의 방식이 안빈이 대표하는 불

23) 서은혜, 「이광수 소설의 ‘암시된 저자’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130~163면.

24) 최주한(2005), 앞의 책, 137면.

25) 이광수, 『사랑』 전편(9판), 박문서관, 147면. 이후 『사랑』에 대한 인용은 별도의 서지사항 표기 없이 편명과 면수만을 기재한다.



교적 사유와 마주치며, 허영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 기독교적인 “수난의 일생”<sup>26)</sup>을 감내하는 순옥의 사랑의 방식을 불교적 “자비심”의 실현으로 이해하는 것에 핵심이 있다. 요컨대 『사랑』은 기독교 윤리와 불교적 사유의 마주침을 통해, 그 이전의 작품들에서 기독교 윤리의 위반 혹은 훼손으로 이해되어 징치되거나 속죄되어야 했던 사건으로서의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결혼’을 새롭게 구조화하는 서사 구성의 원리를 제시하는 한편, 이를 통해 기독교 윤리의 실현으로서의 ‘사랑’의 새로운 형상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작품들과 명확히 구분된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순옥이 안식교도라는 설정을 통해 기독교의 자리에 당대 기독교 소수 종파였던 안식교, 즉 재림교회가 배치되는 것은 흥미롭다. 순옥이 안식교도라는 설정은 대체로 “시공간의 모습이 선명하게 제시되지 않고 지극히 추상화”<sup>27)</sup>되어 있는 이 소설에서 몇 안 되는 현실적 맥락의 추적이 가능한 기호이기 때문이다. 이때 이 글은 ‘안식교’라는 기호를 중심으로, 『사랑』에 나타난 몇몇 기호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 맥락을 추적해나갈 때, 이 작품이 집필된 1938년의 이광수의 내면 풍경과 관련하여 가지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한다.

『사랑』에 등장한 ‘안식교’라는 설정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몇몇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방향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의료 선교를 강조했던<sup>28)</sup> 안식교의 정책과 ‘사랑’을 통한 ‘병’의 치유라는 소설의 주제 사이의 관련성에 주목하는 경우이다. 특히 와다 토모미의 경우 1936년 안식교단에서 설립한 경성요양병원을 『사랑』의 결말에 나타나는 이상적 공간으로서의 북한요양원의 모습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으며<sup>29)</sup>, 윤

26) 후편, 266면.

27) 방민호, 앞의 글, 124면.

28) 이국현, 「한국 근현대사에서 재림교회 선교병원의 역할과 의의」, 『신학논단』 68,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2012, 125면. 안식교(재림교회)의 의료사업에 대해서는 주로 이 논문을 참고했다.

29) 와다 토모미, 「이광수 소설의 ‘생명’의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120~121면. 와다 토모미가 명확하게 지적하지 않고 있지만 1936년은 경성요양병원이 회기동 재림교회

홍로의 경우 주인공인 간호사 석순옥의 모델을 이광수가 상해 시절 체험한 상해 위생병원의 간호사들에게서 찾기도 한다.<sup>30)</sup> 다른 하나의 경향은 채식주의 등 안식교의 엄격한 생활 윤리에 주목하는 경우이다. 대표적으로 서은혜는 이광수의 안식교 체험을 특히 상해 시절의 체험과 관련하여 상세하게 복원하면서 “안식교 및 안식교도들에 대한 이광수의 이미지는 생활의 진실함과 청정함”이며, 이는 다시 “『사랑』의 순옥이 보이는 사랑에 대한 가치관”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한다.<sup>31)</sup> 한편 『사랑』에 대한 본격적인 논문이 아니지만, 안창호·이광수·김창세 세 명의 홍사단원의 민족운동을 개관하며 특히 안창호의 동서이자 안식교도 의사였던 김창세와 관련하여 상해에서의 이광수의 안식교 체험을 소상하게 제시하고 있는 민병진의 논의<sup>32)</sup>도 흥미롭다.

특히 서은혜(2015)와 민병진의 논의를 통해 밝혀진 사실로서, 이광수의 안식교 체험이 특히 상해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던 시절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흥미롭다. 이는 『사랑』과 안식교의 관계를 인물 모델의 측면이나, 『사랑』의 (내포) 작가 및 인물의 가치관과 안식교리의 유사성이라는 차원을 떠나, 『사랑』에 등장한 ‘안식교’라는 기호가 구성된 맥락 자체를 새롭게 검토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때문이다. 이광수의 상해 체험을 도산 안창호와의 관계를 빼고 생각할 수 없으며, 다시 이광수의 안식교 체험이 도산의 동서이자, 홍사단원이었던 김창세를 매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이 점에서 『사랑』에 나타난 안식교라는

합회 본부 근처에 확장 이전한 해이며, 경성요양병원 자체는 중간에 몇 차례 명칭이 바뀌지만, 1931년에 최초로 세워졌음을 부기해둔다. (이국현, 앞의 글, 131~133면)

30) 윤희로, 앞의 글, 45~47면. 윤희로의 이러한 견해는 피천득의 회고에 근거한다.

31) 서은혜, 「이광수의 소설의 ‘사랑’ 형상화와 자전적 인술행위」, 『구보학보』 13, 구보학회, 295면. 그러나 서은혜의 작업은 이러한 평가 자체보다는, 상해 시절 이광수의 안식교 체험을 이광수의 회고에 대한 실증적 검토를 바탕으로 비교적 소상하게 밝혔다는 데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광수의 회고 및 서간문 등에 나타난 상해 시절 이광수의 안식교 체험에 대해서는 위의 글, 293~294면 참조.

32) 민병진, 「일제강점기 민족운동 고찰」, 『춘원연구학보』 9, 춘원연구학회, 2016, 348~374면.

기호를 도산과의 관련성 속에서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한다. 특히 『사랑』이 1938년 3월 도산의 사망 직후부터 쓰이기 시작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안식교라는 기호를 도산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맥락화하며, 도산의 사망 이후 이광수가 모색하던 새로운 정치적 진로와 관련하여 『사랑』을 재독할 가능성과 필요성을 떠올릴 수 있다.

위와 같은 전제들을 기반으로 삼아, 이 글은 ‘안식교’라는 기호를 중심으로 『사랑』에 나타난 몇몇 기호들의 맥락들을 재구축해나가며, 동시에 이를 통해 『사랑』의 플롯, 특히 그 핵심이 되는 순옥과 허영의 결혼이라는 사건이 설정되고 정당화되는 서사적 논리를 다시 읽어나가려 한다. 이때 이 글은 기왕에 밝혀진 상해 시절 이광수의 안식교 체험 이외에도, 한국 안식교회 초기 전도사를 참조할 때, 『사랑』에 나타난 ‘안식교’라는 기호는 도산 혹은 그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구성된 기호로서 ‘도산’의 환유라는 관점을 밝히면서, 이 점에서 『사랑』이 도산의 죽음과 동우회 사건이라는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도산적인 것’을 재구축하고 이를 여전히 실현 혹은 유지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종교적 사유를 경유하여 제시하려고 한 소설이라는 관점을 제시할 것이다. 이는 물론 일차적으로 『사랑』을 1938년의 이광수가 마주해야만 했던 정치적·사상적·윤리적 고뇌의 과정에 배치하여 읽으려는 시도이지만, 동시에 『사랑』의 독특한 종교적 사유를 1938년의 식민지 조선이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보는 것까지를 부분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 2. 도산의 환유로서의 안식교라는 기호

1938년 3월 도산 안창호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이광수에게 가한 충격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의 논의에서 충분히 언급된 바 있다.<sup>33)</sup> 요컨대 도산의 두 차례에 걸친 검거와 구금 및 그로 인한 죽음은 한편으로는 1919년 이

후 이광수가 진력했던 동우회를 중심으로 한 민족운동의 결정적 위기를 뜻하는 것이었으며, 또한 안창호 사후 동우회 사건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동우회의 지도적 위치를 맡게 된 이광수의 결단에 과중한 책임과 무게를 지우는 것이기도 했다. 다시 말해 도산의 죽음이라는 사건은 이광수의 생애에 있어 가장 심각한 위기와 고민을 동시에 던진 사건이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난 뒤부터의 이광수의 행적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이광수 스스로의 회고에 의거한다고 해도 이광수는 최소한 1939년 3월부터, 황군위문작가단 결성에 참여한 일을 시작으로<sup>34)</sup> 그 악명 높은 대일 협력의 길로 나아갔으며, 이광수의 충격적인 전향 및 그 이후의 행적은 한국 근대문학사 연구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로 지금까지도 활발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랑』은 1938년 상반기에 집필이 시작되어 1938년 10월에 전편이, 1939년 3월에 후편이 각각 간행된다. 『사랑』에 대해서 우선 주목할 수 있는 점은 『사랑』이 집필되고 간행되었던 시기가 1938년 3월 도산의 죽음이라는 사건과, 1939년 3월 이광수의 ‘최초의’ 대일 협력 사이에 정확하게 걸쳐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김동인의 지적과 같이 도산의 죽음 이후 이광수는 심각한 위기 의식 속에서 “거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야 했던 것인데, 바로 그러한 ‘거대한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던 1년간 이광수는 다름 아닌 『사랑』을 쓰고 있었던 셈이다. 실제로 「나의 고백」에서 『사랑』의 창작 경위는 다음과 같이 도산의 죽음과 그로 인한 이광수의 내면적 고민과 나란히 배치되는데, 이 부분의 소재목은 다름 아닌 ‘나의 毀節’이다.

안도산이 가니 내 처지는 더욱 어렵게 되었다. 동우회 사건의 전 책임이 내게 달린 것과 같다. 지금까지는 나는 도산을 따라 가면 고만이었으

33)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2권, 서울, 1999. 332-337면.

34) 이광수, 「나의 고백」, 『이광수 전집』 7권(2판), 삼중당, 1976, 274면.

나 인제부터는 내가 이 사건의 앞길잡이를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었다./  
나는 병원에 누워서 소설 〈무명〉, 〈사랑〉 등을 썼다.<sup>35)</sup>

표면적으로 『사랑』에서 이러한 시대적 정황과의 관련성을 찾기는 쉽지 않다. 가령 「육장기」(1939.9)나 「난제오」(1940.2)와 같은 이후의 단편에서 나타나는 바, 전시하(戰時下) 현실에 대한 우려나 윤리적 혼란에 대한 직접적 고백과 같은 것들을 『사랑』에서는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 사랑은 시간적 좌표가 불명료하며, 안빈과 순옥 두 명의 주인공 또한 윤리 혹은 가치의 혼란을 겪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랑』은 1938년의 이광수에게 응당 기대할 만한 위기의식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조금 더 세심하게 소설을 읽는다면, 이광수는 『사랑』을 이러한 위기의식이 부재한 상태에서 썼다기보다 1938년의 급박한 상황이 이광수에게 던져주었던 심각한 위기 의식을 고의적으로 감추며 썼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사랑』에는 이야기의 시간적 좌표를 추정할 수 있는 지표가 거의 드러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광수는 중일 전쟁이 시작되고 파시즘적 국가폭력이 급속히 강화되던 당대의 조선을 『사랑』의 시공간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작품에서 유일하게 시간적 지표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는 다음의 장면을 살펴보자.

그 소년은 누구를 찾는드시 방안을 한번 휘둘러 보더니/『내 그림책』/  
하고 누구를 향하여 말하는지 모르게 한 마디 하고는 도루 나가라는 것  
을 순옥이가/『그림책 이방에 두었었서? 내 찾아주까?』/하고 그 소년의  
손을 잡아 끌어들이고 문을 닫았다. …(중략)… 『응, 이거. 이거야.』/소년  
은 그 중에서 개가 군복을 입고 병정노릇하는 이야기책 하나를 찾아들고  
그 자리에서 퍼더버리고 앉아서 그림보기를 시작한다. …(중략)… 『나인

35) 위의 글, 272면.

뗏살이야?』『이 노라꾸로 보아!』/소년은 좋아라고 박장을 한다./순옥도  
인원도 웃었다./『나이가 노라꾸로야?』/인원이 소년의 턱을 치어든다./『  
여섯살이야?』<sup>36)</sup>

이 인용문은 안빈의 병원에 처음 찾아온 순옥이와 인원이 안빈을 기  
다리며, 안빈의 아들인 협이와 우연히 만나 이야기를 주고받는 대목이다.  
이때 협이가 병원에 들어온 것은 ‘그림책’을 찾기 위해서인데, “개가 군복  
을 입고 병정노릇하는 이야기책”은 바로 뒤에 그 이름이 나오는 〈노라쿠  
로〉[のらくろ]를 뜻한다. 〈노라쿠로〉 시리즈는 1931년부터 1941년까지 코  
단샤講談社の 소년 잡지 『少年俱樂部』에 연재되었던 “쇼와기 최대의 히  
트를 기록한”, 다가와 스이호(田河水洵)의 연재 만화로서<sup>37)</sup>, ‘노라쿠로’라  
는 검은색 개가 흰색 개들로만 이루어진 맹견부대에 들어가 겪는 모험을  
우스꽝스럽게 그린 작품이다.

전체 이야기에서 큰 비중이 없는 사소한 장면이지만, 동시에 바로 그  
점에서 이 삽화가 소설 속에 삽입된 맥락에는 주의를 요한다. 우선 눈여  
겨 볼 수 있는 것은 이 장면이 『사랑』의 스토리 시작지점에 대한 시간적  
지표로 기능한다는 점이다. 나이를 묻는 순옥과 인원의 질문에 이어지는  
엉뚱한 문답들, 특히 인원이 ‘나이가 노라꾸로야?’라는 질문을 곧바로 ‘여  
섯살이야?’라고 정정하는 부분이 그렇다. 이는 인원이 노라쿠로의 나이,  
즉 노라쿠로 시리즈의 연재가 시작된 이후의 햇수를 6년으로 알고 있음  
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작중 이 시점에서 협이의 실제 나이는 8살이기 때  
문<sup>38)</sup> 이 부분은 사실상 이야기의 시간적 좌표를 지시하기 위해서 삽입

36) 전편, 10~13면.

37) 권희주·성윤아, 「전시하의 만화콘텐츠와 만몽개척」, 『한일군사문화연구』 23, 한일군사문화  
학회, 2017, 421~422면. 〈노라쿠로〉 시리즈는 당대 최고의 인기만화답게 단행본으로도 여러  
차례 간행되었는데, 위의 논문의 422면에 연재본과 단행본의 출판 상황이 정리되어 있다.

38) 협이의 나이가 8살이라는 것은 이 장면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안빈이 박사학위를 받는 3년  
뒤의 시점에서 협이의 나이가 11살로 나온다는 점을 통해 추산할 수 있다. (전편, 286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때 “만화 〈노라쿠로〉는 일본이 중국을 침공하기 시작한 1931년에 등장했으므로”<sup>39)</sup> 현재의 시점은 1937년임이 암시된다.

1937년은 물론 중일전쟁이 시작(7.7)되고, 동우회 사건(6.7)이 발생했으며 그로 인해 안창호가 재투옥(6.28)된 해, 다시 말해 식민지 조선이 전시체제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 와중에 안창호와 이광수, 그리고 동우회 운동 전체가 심각한 탄압을 받기 시작했던 해이다. 이때 이러한 시간적 지표가 하필이면 노라쿠로라는 군국주의적<sup>40)</sup> 어린이 만화를 통해 제시된다는 점은 흥미롭다. 8살의 아이가 ‘개가 군복을 입고’ 일본군에 소속되어 ‘병정노릇하는 이야기’를 열독하는 광경은 1937년의 조선에 근거하여 설정된,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의 ‘현재’의 모습에 대한 이광수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본다면 『사랑』은 기독교적 사랑과 불교적 자비가 결합된, 안빈과 순옥의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이러한 ‘현재’의 사회가 치유되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그린 소설이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역시 안빈과 순옥의 각각의 논리와 윤리가 제시되고, 다시 상호결합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우선 문제삼을 수 있는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기독교라는 소재를 차용한 그 동안의 이광수 소설과는 달리, 『사랑』에서 기독교도로서 소설 구성

39) 토머스 라마, 김계원 역, 「전시기 애니메이션에서 동물로 번역된 인종」, 『문화과학』 93, 2018, 316면.

40) 권희주·성윤아에 의하면 〈노라쿠로〉 시리즈의 군국주의적 성향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만화의 내용이 ‘돼지’로 묘사된 중국군과의 전투 위주로 바뀌면서 점차 국책수행 만화로서의 성격이 강화된다고 지적한다. (권희주·성윤아, 앞의 글, 423-424면) 토머스 라마는 노라쿠로의 연재가 시작된 1931년이 일본의 중국 침략이 시작된 시기였다는 점을 환기하며, 1931년 연재 시작 당시 이등병이었던 노라쿠로가 연재가 진행되면서 승진을 거듭하는 것이 “일본이 ‘아시아’ 전쟁에 점점 더 깊숙이 개입해 들어가는 계기들과 평행을 이룬다”는 지적과 함께, 노라쿠로 시리즈의 ‘동물’ 형상들을 전쟁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점차 강화되어가던 식민지와 적국에 대한 인종주의적 알레고리로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토머스 라마, 앞의 글, 316-318면)

의 한 축을 대표하는 순옥의 종교가 안식교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 점이다.

작중 순옥이 안식교인이라는 것은 표나게 강조된다. 특히 순옥의 엄격한 생활방식과 ‘청정한’ 인격의 성립은 가령 “안식교의 엄격한 종교생활”이 “순옥이와 밎 그 형제들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 큰 힘을”<sup>41)</sup> 주었다든가, “다 안식교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종교적 분위기 속에서 종교적 훈련을”<sup>42)</sup> 받고 자랐다는가, “안식교의 선교사들의 청정하고 경건한 생활을 흠모”<sup>43)</sup> 했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순옥은 집에서 일상적으로 “비린것 들지아니한 양식”인 “청초하고 싱싱한 안식교인식 요리를”<sup>44)</sup> 만들어 먹을 정도로 안식교의 생활방식을 내면화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런데 의아한 점은 순옥의 인격 형성 과정에서 이처럼 다대한 역할을 했던 안식교 교회 조직 및 안식교 선교사를 비롯한 안식교도들이 작중 현재의 순옥의 삶에서는 사라지고, 오로지 그 엄격한 생활방식만이 남아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황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지만 분명하게 서술된다.

이러한, 안식교의 엄격한 종교생활이 순옥이와 밎 그 형제들의 인격을 형성하는데 큰 힘을 준 것은 말할 것이 없다. / 『깨끗한 생활, 하느님다운 생활, 성경대로의 생활』 / 이것이 안식교도들의 생활의 목표요 준칙이었다. 순옥은 비록 안식교의 교리중에서 여러가지 점에 대하여 신앙을 잃었다 하더라도 그 생활방식만은 순옥의 것이 되고 말았다.<sup>45)</sup>

안식교의 ‘생활방식’만이 남은 것은 순옥이 안식교 교리에 대한 신앙을 잃었기 때문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는 서술되지 않

41) 전편, 302면.

42) 위의 책, 414면.

43) 후편, 474면.

44) 전편, 301면.

45) 위의 책, 302면.



는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순옥이 안식교를 접한 것이 “순옥이의 집이 몇햇동안 순안에 있을 때”<sup>46)</sup>의 일이었다는 점이다. 이때 “순옥의 어머니가 안식교의 세례를 받은 관계로 순옥의 오빠 영옥과 순옥이네 형제도 안식교인”이 되었던 것이다.<sup>47)</sup> 말하자면 ‘평양 출신’<sup>48)</sup> 순옥의 안식교는 ‘순안의 안식교’이지 ‘경성의 안식교’는 아닌데,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창기 한국안식교회사 및 여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임기반에 대해서 살필 필요가 있다.

순안은 조선 안식교의 “2대 중심지”로서 1906년부터 1909년까지 안식교 교회 본부가 있던 곳이자, 안식교 계통 사립학교였던 의명학교와 안식교 병원이자 경성요양병원의 전신인 순안병원이 있던 교육·의료 선교의 중심지이기도 하였다.<sup>49)</sup> 순안에 안식교 본부가 있었던 것은 안식교의 국내 전파가 평양의 남서쪽 인근 용강과 강서에서 시작되어, 이후 평양과 순안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거치며 평안남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때 이러한 안식교의 초기 전파 과정은 근당(謹堂) 임기반(林基磐, 1867~1932)<sup>50)</sup>의 역할을 빼고 설명할 수 없다.

46) 위의 책, 301면.

47) 위의 책, 301-302면.

48) 작중 순옥의 고향은 평양으로 추측되며, 순옥네 가족은 평양 출신으로 일시적으로 순안에 거주하며, 그때 안식교를 접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순옥의 고향이 평양이라는 것은 순옥이 전문학교 졸업 후 “평양○○여자고보 영어교사”(전편, 38면)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는 점과 함께, 옥남과 순옥의 문답 가운데 어머니가 “평양”에 있는 “집에” 계신다고 진술하는 부분(전편, 187면)에서 추측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평양 출신의 순옥네 가족이 안식교를 만나고, 순안에 거처를 마련하며, 다시 순안을 떠나고 안식교에서 멀어지게 되는 과정은 이 글에서 후술할 내용인, 초창기 한국 안식교회사를 주도했던 임기반의 활동 궤적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그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9) 이영린, 『한국재림교회사』, 시조사, 1965, 271면.

50) 임기반의 생애에 대해서는 주로 이종근, 「민족계몽과 독립운동의 선구자 근당 임기반 재조명」(『도산사상연구』 7, 도산사상연구회, 2001)을 참고했다. 첨부한 <그림 1>은 대한민국 공훈전자자료관에서 제공하는 「독립유공자 공적조사: 임기반」(관리번호: 72564)에서 가져왔다. (<https://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DetailPopup.do?goToCode=0&mngNo=72564&wcd=%EC%9E%84%EA%B8%B0%EB%B0%98>)

『한국재림교회사』에 의하면 한국 최초의 안식교 신도는 하와이 이민을 가다가 경유지 고베에서 안식교 전도사 쿠니야 히데(国谷秀)를 만나 1904년에 침례를 받은 손흥조와 유은현이었다.<sup>51)</sup> 그러나 하와이로 간 유은현은 물론이고 고향인 경상도로 돌아갔던 손흥조 또한 그 이후 두드러진 활동은 없었던 듯하다.<sup>52)</sup> 실질적으로 한국에 안식교를 전파한 것은 하와이를 방문했다 돌아오던 길에 손흥조와 만나 감리교에서 안식교로 개종한<sup>53)</sup> 근당 임기반이었다.



〈그림 1〉 안식교의 초기 전파 과정을 주도했던 근당 임기반(1867~1932)

임기반의 초기 안식교회 개척과 관련하여 주목할 수 있는 점은 두 가지이다. 우선 눈길을 끄는 것은 임기반과 도산 혹은 그 주변 사이의 밀접한 관계이다. 임기반은 독립협회 평양지부 간부로 활동했으며, 이 과정에서 안창호·이강 등과 긴밀하게 교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54)</sup> 임기반은 후에 미국에서 안창호와 함께 공립협회를 결성하는 임준기의 친척으로서, 1899년 안창호가 강서 동진면 암화리에서 점진학교를 세울 때의 주요한 후원자 중 한 명이었다.<sup>55)</sup> 1900년 전후에 임기반은 ‘노동 이민을 모집하는 개발회사’의 진남포 지사 직원으로 일하면서 안창호와 이강의 미

51) 이영린, 앞의 책, 14면.

52) 위의 책, 22면. 『한국재림교회사』에서는 해주와 부산에서 이루어진 손흥조의 활동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손흥조는 이 당시 서북 지방을 중심으로 형성된 안식교 교회조직에 들어와있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손흥조가 “오랫동안 소식이 없다가 1927년에 재침례를 받았다”는 점(위의 책, 46면)에서 알 수 있다.

53) 이종근, 앞의 글, 241면; 이영린, 앞의 책, 16면.

54) 이종근, 앞의 글, 234면.

55) 김삼용, 『투사와 신사 안창호 평전』, 현암사, 2013, 38면.

국행을 도왔다고 하며<sup>56)</sup>, 또한 안창호의 처인 이혜련과 안창호의 결혼 중 매에도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있다.<sup>57)</sup> 원래 감리교도였던 임기반이 안식교로 개종하는 계기가 되었던 1903년의 하와이행 또한 본토에 머물던 이강과 안창호, 임준기 등의 초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다.<sup>58)</sup> 임기반의 안식교 활동에 있어 최초의 찬동자들 중 하나가 용강군 입석리에 남았던 이강의 누이동생 이신독의 가족들이었던 점<sup>59)</sup>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교세의 확장 과정에서 임기반은 1906년부터 평양교회의 책임자로서 사역<sup>60)</sup>했으며, 이 과정에서 도산의 친인척들 중 일부가 안식교로 개종하기도 했다. 안창호의 장인인 이석관은 안식교로 개종한 뒤 순안 의명학교 교사로 일했고<sup>61)</sup>, 다시 이석관의 사돈인 김승원은 1905년 일본 안식교회 수양회에 참석한 후 일본에서 인쇄기술을 배워 출판부에서 일하며, 1909년 본부가 서울로 이동함에 따라 서울로 이주하여 지속적인 사역 활동을 펼친다.

임기반의 이러한 초창기 활동에서 또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초기 안식교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임기반이 그 이후 조선 안식교의 책임자로 부임해 온 외국인 신부들과 지속적인 의견 차이를 보이며 갈등하던 끝에 1909년에 끝내 안식교를 떠난다는 점이다. 1904년 임기반의 귀국 이후 임기반은 정치적 이유로 은신하면서<sup>62)</sup> 감리교 신도들을 모으기 시작한다. 그 중 원래 감리교도였던 이강의 누이동생 이신독의 가족들이 있었던 것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다. 이후 이들은 36명의 찬동자를 얻고 고베의 쿠니야 히데에게 교회를 세워줄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발송하며, 이

56) 이종근, 앞의 글, 235면.

57) 위의 글, 237면.

58) 위의 글, 235-236면; 이영린, 앞의 책, 16면.

59) 이영린, 앞의 책, 18면.

60) 위의 책, 268면.

61) 「건학100년사」, 삼육대학교 (<https://www.syu.ac.kr/about-sahmyook/history-vision/history>), 51면.

62) 이영린, 앞의 책, 16면.

후 쿠니야의 내한, 일본 미션장 필드의 내한, 1904년 9월의 진남포 총회, 1905년 일본 동경에서 열린 교회 수양회 참가를 거쳐 1905년 11월 17일 초대 선교사 스미스(W.R.Smith)의 내한으로 본격적인 교회 조직이 성립 되기에 이른다.<sup>63)</sup> 스미스는 교회 본부를 한 동안 진남포에 두었으나 순안의 유지 김두형의 권유로 1906년 여름 본부를 순안으로 이전했으며, 1906년 11월 선돌 간부회의를 통해 지역별 책임자를 결정함으로써 초기 한국 안식교회 조직의 윤곽이 결정된다. 이때 임기반은 자신의 활동 근거지인 평양 지역의 책임자가 된다.

흥미로운 점은 이후 안식교의 주요 사업들에 있어 임기반이 스미스와 의견 차이를 보였다는 점이다. 우선 1907년부터 불거진 순안 의명학교(현재 삼육대학교의 전신) 설립 문제가 있다. 임기반은 순안에 소규모 학교를 세우려는 스미스의 계획에 반대하여, 자신이 맡고 있는 평양에 큰 규모의 학교를 세울 것을 주장했는데, 이러한 의견차는 단순히 학교 설립 위치와 규모만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의명학교를 “한국 재림교회의 복음 및 교육 사업을 담당할 청년들을 양성하기 위한 사역자 양성과정”으로 생각한 스미스의 견해에 임기반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sup>64)</sup> 또한 임기반은 강근명 등과 함께 1909년 교회 본부를 서울로 옮기려는 스미스의 계획에 정면으로 반대하여 결국 자신을 따르는 신자들과 함께 안식교를 떠나 자유교회 운동을 전개하며, 결과적으로 안식교 평양교회는 “와해”되었다.<sup>65)</sup>

1904~1909년 사이 초기 안식교회사에서 임기반과 스미스 사이에 존재

63) 위의 책, 16-23면.

64) 『건학100년사』, 앞의 책, 43면.

65) 이영린, 앞의 책, 268면. 한편 임기반과 최봉환 등이 주도한 자유교회 운동은 1910년 8월 통감부에 “예수교 자유회” 취지서 등을 전달함으로써 본격화된다. (『무슴각유』, 『대한매일신보』, 1910.8.7) 임기반이 설립한 예수교 자유회는 진남포에서만 4천여명의 입회를 받는 등 평안도 인근에서 한 때 큰 성과를 거두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스천여명입회』, 『대한매일신보』, 1910.8.27)

했던 이러한 갈등은 초기 안식교 운동의 성격과 거점에 대해 임기반을 비롯한 일부 지도자들과 서양 선교사들의 생각이 달랐음을 보여준다. 이를 테면 초기 안식교회사에서 용동(구룡리) 교회의 경우, “정치성이 강하여 복음 사업보다는 독립 운동에 더 관심이 컸었다”<sup>66)</sup>는 기록이 보이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임기반 등에 의해 주도된 한국의 초창기 안식교 활동은 순수한 종교운동이라기보다는 1890년대 말~1900년대 초까지 평양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계열 애국계몽 운동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었으며, 평양의 신자들이 안식교 신자였다기보다는 임기반의 지지자였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그 인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안식교 전파의 초창기에 있어 이 네트워크의 중심에는 임기반이 서있었으며, 이러한 임기반의 주변에 다시 도산 안창호와 그의 동지였던 오산 이강과 같은 이름들이 놓인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적어도 초창기 안식교의 전파는, 도산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도산을 둘러싼 국내의 주변인물들 사이의 어디쯤에서인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흥사단의 국내조직인 수양동우회가 “그 자체가 기독교단체는 아니었지만” “관서계 기독교 민족운동의 실질적인 지도부”로서 기능했다는 점<sup>67)</sup>을 생각해본다면, 유사한 인적 네트워크로 구성된 초창기의 조선 안식교 운동 또한 도산의 주변 어딘가에 놓인 서북 지방 중심의 기독교 민족주의 조직으로서 도산과 마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했던 것이다.

실제로 임기반은 안식교단에서 활동하던 시기를 포함하여 전생애를 애국계몽운동가 및 독립운동가로서 활동하며, 그 과정에서 도산과의 일부 접점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독립협회 평양지부 시절 임기반이 안창호 등과 교류했다는 점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지만, 그 외에도 이를테면 임기반은 안창호가 귀국하기 직전인 1907년 2월에 안식교회 순안 이북 지역 총책임자이자 안식교 순안 본부 부지를 제공했던 김두형, 안창호의 장

66) 이영린, 위의 책, 267면.

67) 장규식, 『일제하 한국 기독교민족주의 연구』, 혜안, 2001, 142-143면.

인인 이석관의 사돈이자, 순안에서 스미스 목사의 통역 및 번역 업무를 담당했던 김승원<sup>68)</sup> 등 초기 안식교의 주요 조선인 지도자들과 함께 서우학회에 가입<sup>69)</sup>하며, 이후 안창호 등에 의해 주도<sup>70)</sup>되었던 바, 관서계 애국계몽운동 네트워크의 통합을 위한 서북학회 창립에 참여하기도 하였다.<sup>71)</sup> 합방이 이루어진 뒤 임기반은 만주로 건너간 뒤, 1920년 즈음에는 만주일보 편집인을 맡으며 상해임시정부와의 긴밀한 교감 속에서 활동하던 조선독립청년단 운동의 자금조달에 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sup>72)</sup>

한편 서은혜(2015)와 민병진의 논의에서 밝혀진 것이지만, 실제로 이광수의 안식교 체험은 1919-1920년 상하이 망명 시기에, 위에서 언급한 안식교 사역자 김승원의 아들이며 안창호의 동서이자 이 시기 안창호의 주치의 노릇을 하며 흥사단에 가입했던 김창세(金昌世)<sup>73)</sup>를 매개로 이루어졌다.<sup>74)</sup> 이광수의 회고에 의하면 김창제는 상해 안식교대학 교수인 캉거(M.G.Conger) 목사를 이광수에게 소개했으며, 이광수는 캉거에게 1년 동안 매주 두 차례 성경 강의를 듣기도 했다.<sup>75)</sup> 또한 이광수는 의사였던 김창제와 함께 대한적십자회의 설립, 부속 간호원양성소 개설에 참여하는

68) 이영린, 앞의 책, 25면.

69) 「新入會員氏名 第三回」, 『서우』 3, 1907.2, 42면.

70) 신용하, 『민족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평전』, 지식산업사, 2021, 107면.

71) 「會報」, 『서우』 16, 1908.3, 37-46면.

72) 「在北京鮮人獨立青年團組織計劃者檢學=関スル件」, 陸軍省, 1920.3.26, pp.1510-1521.

73) 김창세는 1909년 동경 정칙학교를 졸업하고 1913년까지 순안 의명학교 교사로 있다가(민병진, 앞의 글, 349면) 1908년 조선에 온 선교의사 '노설'(Riley Russel)의 조수 겸 통역으로 일하게 된 것을 계기로 안식교회의 장학금을 받아 1917년에 세브란스연합의학고를 졸업하고(이영린, 앞의 책, 199면; 박윤재, 「김창세의 생애와 공중위생 활동」, 『醫史學』 15(2), 대한의사학회, 2006, 212면), 다시 1918년까지 안식교 순안병원에서 일하다, 1918년 채립교회에서 운영하는 상하이 흥십자병원에 선교 의사로 파견된다. (위의 글, 213면)

74) 서은혜(2015), 앞의 글, 293-296면. 첨부한 〈그림 2〉는 대한민국 공훈전자자료관, 「독립유공자 공적조사: 김창세」(관리번호: 80118)에서 가져왔다.

(<https://e-gonghun.mpa.go.kr/user/ContribuReportDetailPopup.do?gcTocode=0&mngNo=80118&wcd=%EA%B9%80%EC%B0%BD%EC%84%B8>)

75) 서은혜(2015), 앞의 글, 293면; 민병진, 앞의 글, 368-369면.

등 임시정부의 의료사업에 동참하기도 했다.<sup>76)</sup> 이후 김창세는 미국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25년 귀국하여 동우회의 의사부장으로 활동<sup>77)</sup>하였으며, 다시 1927년 상해 위생교육협회의 현장 책임자를 맡아 1929년까지 중국에서 공중위생 관련 활동을 펼친다.<sup>78)</sup> 1929년 4월 상해에 있던 안창호가 김창세의 권유를 받아 김창세와 함께 필리핀을 시찰하기도 했다는 점<sup>79)</sup>을 본다면 김창세는 1920년대 초반의 상해 임정시절 이후에도 도산의 친인척이자 흥사단원으로서 도산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1920년 전후 이광수에게 안식교를 소개한 김창세(1893~1934)

이광수는 김창세를 무척 “경건한 안식교인”으로 보았다. 자주 인용되는 부분이지만, 허영숙에게 보낸 이광수의 다음과 같은 편지는 위에서 보았듯 “깨끗한 생활, 하느님다운 생활, 성경대로의 생활”로 정리되는 안식교도 순옥의 생활에 대한 『사랑』의 묘사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끔 한다.

김박사라는 청년 의사가 하나 있는데 놀러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 끝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깨끗한 생활을 해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되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물었소. 그는 경건한 안식교인이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사람의 힘으로는 안되는 일,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는」 하였습니다. 내 생활의 변전을 일으킨 것은 이 단순한 말 한 마디에서입니다.<sup>80)</sup>

76) 박윤재, 앞의 글, 213~214면; 서은혜(2015), 앞의 글, 294면; 민병진, 앞의 글, 368~369면.

77) 민병진, 앞의 글, 378면.

78) 박윤재, 앞의 글, 220~222면.

79) 안창호, 「比律賓視察記」, 『삼천리』 5(3), 1933.3, 10~11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김창세를 경유한 이광수의 안식교 체험이 어디까지나 도산의 주변에서, “동지애”<sup>81)</sup>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던 점이다. 평양 인근 지방을 중심으로 20세기초 기독교 애국계몽운동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초기 안식교의 전파 과정이 그러했듯이, 이광수와 김창세, 즉 안식교와의 만남은 어디까지나 도산의 주변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만남이 이광수가 안창호에게 한창 경도되어 있었던 상해 시절에, 도산의 주변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안식교의 엄격한 생활 양식은 무실, 역행, 근면, 충실 등의 가치를 내세우는 흥사단의 이념과 결부되어 이해되었을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이광수는 상하이 시절 김창세와 강거 등을 통해 관찰한 안식교도의 생활 방식을 이후 “진실하고 청정한 인간 생활 운동”으로서, “교파의 여하를 勿論하고 인류를 구제하는 聖業”으로 치켜세우고<sup>82)</sup>, 강거와의 성경공부를 “건실한 인격의 기초”를 닦는 일로서 “수양의 일과”로 표현하기도 한다.<sup>83)</sup>

초기 안식교회사 및 이광수의 안식교 체험을 검토하며 파악할 수 있는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사랑』에서 순옥에 대한 안식교의 영향을 ‘과거’, ‘순안’에서 접했던 것으로, ‘청정하고 경건한 생활’이라는 측면으로 한정해서 서술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다. 즉 이러한 설정은 작품의 ‘안식교’라는 기호를 ‘현재/경성의 안식교’와 분리하여, ‘과거/순안(=서북)의 안식교’로 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써 작중 안식교라는 기호는 교회 본부의 경성 이전 이후 민족주의적인 기독교 운동과 분리되어 이를테면 1936년 1월 계열 학교의 신사참배를 성명해야 했던 것<sup>84)</sup>과 같은, 1930년대 말 현재의 안식교가 환기하는 맥락에서 벗어나, 서북 지역 기독교 운

80) 이광수, 「사랑하는 영숙에게」, 『이광수전집』 9권, 삼중당, 1976, 304면. 이 부분은 서은혜 (2015), 앞의 글, 294면과 민병진, 앞의 글, 367면에도 인용되어 있다.

81) 민병진, 앞의 글, 379면.

82) 이광수, 「안식교회와 나」, 『時光』, 1939, 10, 6-7면, 서은혜, 앞의 글, 293면에서 재인용.

83) 이광수, 「사랑하는 영숙에게」, 『이광수전집』 9권, 삼중당, 1976, 303면

84) 한석희, 김승태 역, 『일제의 종교침략사』, 기독교문사, 1990, 163면.



동 네트워크의 일익으로서, 이광수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기독교적 수양 운동으로까지 감지되었던 과거의 안식교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다른 맥락들을 환기한다. 그리고 이렇게 환기된 맥락의 주변 어딘가에 도산 안창호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 안창호 스스로 안식교의 존재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도 분명<sup>85)</sup>하지만, 그보다도 과거 서북 지방의 초기 안식교 운동은 도산의 주변 어딘가에서 이루어졌고, 마찬가지로 도산의 주변에 있던 이광수가 안식교와 마주친 곳이 다시 도산의 주변이었다는 점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사랑』의 ‘안식교’라는 기호를 도산과 관련된 기호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물론 그 기호가 기본적으로 장로교도였던<sup>86)</sup> 도산을 직접 지시하지는 않는다. 안식교라는 기호가 놓여있는 곳은 도산이 아니라 도산의 주변이며, 당연히 그 주변의 다른 어딘가에는 이광수 자신 또한 놓여 있다. 이 점에서 『사랑』의 안식교라는 기호는 도산의 은유 혹은 알레고리라기보다는 도산의 환유에 해당한다. 도산의 죽음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정치적 억압의 결과로서, 이를테면 ‘선도자’와 같은 작품이 끝내 완성되지 못했던 사정과 같은 혹은 더 악화된-조건에 놓여 있었다는 것은 도산의 죽음이라는 위기의 상황에서 이광수가 도산의 은유를 내놓지 못하고 도산의 환유를 내놓아야 했던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사랑』의 안식교를 도산의 주변에 놓인 것으로서, 때문에 도산을 환유하는 하나의 기호라고 생각할 때, 『사랑』의 안식교는 ‘도산’ 혹은 그 사상의 본질-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환유가 아닌 은유가 필요할 것이다-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안식교와 마찬가지로 도산의 주변에

85) 이를테면 1919년 상하이에 도착한 안창호가 신병 치료를 위해 안식교 계열 병원인 “홍심자 병원”에 입원한 것(이광수, 「도산 안창호」, 『이광수 전집』 7(2판), 삼중당, 1976, 144면)이나, 안창호가 임종 직전 선우훈과의 대담에서 “순안 안식교의 제품인 포도즙”을 언급한 부분(주요한, 『안도산전서』, 삼중당, 1971, 443면)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86) 「第四團友 安昌浩 履歷書」, 도산안창호선생전집편집위원회 편, 『도산안창호전집』 10권, 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 2000, 554면.

놓여 있는 ‘도산적인 것’들의 특정한 부분을 암시한다.<sup>87)</sup> 이렇게 본다면 『사랑』은 1937년에서 1938년까지 이루어진 일련의 상황, 즉 중일전쟁이 벌어지고, 동우회 사건이 터지고, 안창호가 사망한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서 ‘도산적인 것’, 다시 말해 도산의 그것이라기보다는 도산의 가까운 주변에 놓였던 어떤 것들이 어떻게 유지되고 실현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 있는 소설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탐색이 순옥의 안식교적 윤리를 안빈의 불교적 사유와 마주치게 하고, 다시 순옥에게 안빈이 아닌 허영과의 결혼을 감행하게 하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 점을 주로 『사랑』의 플롯이라는 문제와 관련지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3. ‘도산적인 것’의 재배치와 전향의 논리

『사랑』의 안식교라는 기호를 도산의 환유로 보고, 이로부터 “청정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안식교도 순옥을 ‘도산적인 것’의 특정한 부분을 체현하고 있는 인물로 본다면, 『사랑』은 우선 순옥에 체현된 ‘도산적인 것’을 재구축하고 재배치함으로써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시국에서 ‘도산적인 것’의 유지 혹은 지속이 가능할 것인지를 묻고 있는 작품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재구축과 재배치는 작중 제시된 순옥의 모든 행동을 과거의 문인이자 지금은 의사인 범화행자 ‘안빈’과의 관계 속에서 다

---

87) 환유와 은유의 구분에 대해서는 로만 야콥슨의 고전적인 논의를 참고했다. 야콥슨에 의하면 은유의 기반인 “의미상의 유사성은 메타언어상의 부호와 문제가 되고 있는 언어의 부호를 연결”시키며, 이를 통해 “은유적 어사와 그것이 대치한 본래의 어사를 연결”한다. 그러나 인접성의 원리에 의존하는 환유는 “해석을 쉽사리 비껴간다.” 때문에 인접성의 원리는 특정한 지시대상으로 곧바로 가닿기보다는 연쇄하는 “인접 관계들의 길을 따라”, 특히 사실주의적인 산문과 소설에서 “플롯에서 분위기로, 성격들에서 시·공간의 배경으로 환유적인 걸음을” 옮긴다. (로만 야콥슨, 신문수 편역, 「언어의 두 양상과 실어증의 두 유형」, 『문학 속의 언어학』, 문학과지성사, 1989, 112-116면.

시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우선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안빈의 모델이다. 작중 안빈의 모델이 의사 장기려 박사라는 말도 있지만,<sup>88)</sup> 적어도 문인으로서 활동했던 안빈의 전반기 생애가 춘원 자신의 그것을 모델로 한 것임은 너무나 명백하다. 이를테면 안빈은 “삼십이삼세에 벌써 문단의 거장이요 지도자의 지위를 확보”한 문인으로서, 순옥을 비롯한 많은 애독자들을 가지고 있었다.<sup>89)</sup> 또한 “십년 가까이 문예계의 중심세력”으로서 “수십명의 시인과 소설가”를 배출한, 안빈이 “주간하던 문예잡지 「신문예(新文藝)」<sup>90)</sup>는 곧바로 『조선문단』을 연상시킨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이러한 안빈의 문단 경력 이외에도 가령 장남 ‘한이’가 요절<sup>91)</sup>한 일이라든가, 한이 뒤로 협이, 윤이, 정이의 삼남매를 두고 있다는 것<sup>92)</sup> 등도 곧바로 이광수의 가족 관계를 떠올리게 되는 부분이다.

이처럼 작중 안빈이 기본적으로 이광수 자신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안빈의 문인에서 의사로의 변모는 이 시기 심각한 내적 고민을 바탕으로 하여 이광수가 모색했던 사상적·실천적 변화의 모색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변화의 내용을 따지기 전에 기억해두어야 할 것은, 안식교도 순옥이 안빈의 주위에 배치됨으로써 ‘도산적인 것’의 배치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안식교라는 기호가 연쇄적으로 환유하는 ‘도산적인 것’이 원래 도산의 주위에 배치된 것이었으며, 이광수 자신 또한 그러한 도산의 주위에 놓인 연쇄적인 환유적 기호로서의 ‘도산적인 것’ 중 하나·실체로 이는 도산에 대해 끊임없이 쓰고 말한 이광수가 수행한 역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였다면, 『사랑』에서 이광수/안빈의 주위에 순옥이 배치되면서 안식교도 순옥

88) 김윤식, 위의 책, 290면.

89) 전편, 230면.

90) 위의 책, 230면.

91) 위의 책, 249면.

92) 위의 책, 161면.

이 지시하는 ‘도산적인 것’은 도산의 주변에서 안빈의 주변, 즉 춘원의 주변으로 그 위상이 이동한다. ‘도산적인 것’이 이전에는 도산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면, 『사랑』에서는 그 ‘도산적인 것’이 안빈/춘원의 주변을 맴도는 것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환은 물론 도산 사후, 이광수 자신이 생각했던 자신의 상황으로서, “동우회의 전 책임”이 자신에게 걸리게 된 상황과 긴밀하게 조응한다.

『사랑』을 이러한 관점에서 읽는다면, 『사랑』은 무엇보다도, ‘도산적인 것’을 체현하는 순옥이의 자기동일성을 안빈의 사상을 경유하여 완강하게 유지하는 이야기이다. 반복하지만, 이때 이러한 자기동일성의 유지가 순옥이 안빈이 아닌 허영과 결혼하는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이 작품의 문제성이 된다. 『사랑』의 서사는 최초로 유지되어야 할 순옥이의 자기동일성을 제시하고, 다시 이를 유지하기 위한 역설적인 논리를 안빈의 법화경 사상을 통해 정당화하며, 이어 그러한 안빈의 사상과 논리를 순옥의 모순적이며 희생적인 선택을 통해 차례대로 보여준다.

『사랑』의 초반부를 채우는 것은 ‘아모로젠’과 ‘아우라몬’에 대한 안빈의 그 유명한 혈액 실험이다. 인간의 성품을 혈액 실험이라는 ‘과학적’ 방법을 통해 도출하려 하는 『사랑』 초반부의 이 유명한 장면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작품이 과시즘적이고 인종주의적인 ‘우생학’에 가깝다는 비판적 논의를 유발했지만, 이러한 평가를 일단 유보하고, 이러한 설정의 서사적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이 초반부의 혈액실험이 제시하는 것은, 이후 이야기의 전개 속에서 순옥이 지향해야 할 목표와 방법이다.

순옥의 혈액에서 “성인의 피에서나 얻어보리라고 상상하고 있던” ‘아우라몬’이 검출된 후 순옥과 안빈이 가지는 공통적인 목표는 바로 순옥의 아우라몬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그 목표가 설정된 순간부터 이후 『사랑』의 서사의 핵심을 이루는 순옥의 역설적인 선택과 그

에 따른 희생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아우라몬’이 육체적인 사랑의 감정으로부터 분출되는 ‘아모로젠’과는 구분되는 보기 드문 것이며, 순옥이 아우라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안빈이 순옥에게서 느끼는 매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고 할 때,<sup>93)</sup> 두 사람의 결연은 “금이 납으로”<sup>94)</sup> 변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빈의 혈액실험, 즉 아우라몬과 아모로젠의 구분을 일단 받아들인다면, 그 순간부터 안빈과 순옥의 결연은 불가능해진다. 왜냐하면 성인의 피에서나 볼 수 있는 그 아우라몬은 어떻게든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서로 결혼할 마음이 없다는 점을 인원에게 이야기하는 순옥과 안빈의 다음 두 발화는 이를 잘 보여준다.

그런 걸 내가 입술을 꼭 물구. 옳은 마음을 지키누라고, 나 자신의 유혹에 지지않으라구, 부덕부덕 애를 썼어요. 내 핏속에 아모로젠이 생기지 못하게 하누라구, 내 피를 영원히 아우라몬의 상태루 유지하누라고, 삼년 반 동안이나, 삼년반이라기 보다는 일천이백일 동안이나, 피 흐르는 싸움을 하지않았수?<sup>95)</sup>

내야 동물적이오 또 동물적인 범주요 속인이겠지 마는 내가 순옥이를 볼 때에는 그 속에 있는 신성만을 보구 싶단 말요. …(중략)… 정직하게

93)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부분에 주목할 수 있다. “우주에 있는 만물중에 사람의 몸처럼 아름다운 것이 있을가, 다른 세계에는 비록 지구의 인류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가 있다고 허다라도 현재의 이 지구우에서는 어린애기와 사랑에 타는 젊은이의 몸이야말로 아름다움의 마루태기가 아닐수 없다. 비록 이따가 슬어질 헛개비라 허더라도 무심코 가슴에 몸을 던진 순옥은 찬미할 아름다운 존재였다. 하물며 그몸속에 전혀 물욕을 떠난 아우라몬의 혼이 들어있다고 생각함에랴”(위의 책, 130면) 이 부분은 순옥의 피에서 아우라몬을 검출한 뒤, 순옥이 그 기쁨에 순간적으로 안빈에게 기댄 사건으로 인해 안빈이 순옥에게 느끼게 된 성적 끌림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여기서 순옥이 아우라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안빈에게 있어 순옥이 지니는 매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

94) 위의 책, 131면.

95) 위의 책, 370면.

고백을 하자면 순옥이가 젊고 아름다운 한 인류의 여성으로 내눈을 끄는 순간두 없는 것은 아니었지 마는 그래두 나는 그를 한 성인으루, 이룰테면 신성으루 존경두 허구 사랑두 해 왔단 말요. 나는 피에서 순수헌 아우라몬을 발견헌 것이 순옥에게서 밖에 없었어. …(중략)… 이만허면 내가 순옥과 혼인 할 마음이 없다는 뜻을 알겠소?<sup>96)</sup>

『사랑』의 서사 전반을 추동하는 것이 순옥의 자기동일성 유지에 대한 이러한 집요한 요구라는 점은 충분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 작품에서 순옥의 생각 자체야 안빈이 설파하는 불교적 인연론과 자비의 원리를 받아들여 조금씩 발전하며, 그 결과 특히 허영과의 결혼 생활에서 나타나는 바, 순옥이 실천하는 ‘사랑’의 구체적 형태가 드러나지만, 그럼에도 순옥의 성격과 생활방식 자체는 이야기가 진행되는 와중에 조금도 변화하지 않는다. 순옥의 자기동일성은 소설의 초반부에서 ‘아모르겐’이 아닌 ‘아우라몬’을 순옥의 혈액에서 검출하는 부분을 통해 안빈의 박사학위논문, 즉 ‘제국 대학 의과’의 권위를 빌어 명확하게 선포되며, 순옥과 허영의 결혼이라는 핵심적 사건을 포함한 그 이후의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소설의 초반에 검출된 순옥의 ‘아우라몬’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사랑』을 이러한 이야기로 이해한다면, 『사랑』에서 읽을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순옥을 통해 제시되는 어떤 윤리와 가치들을 끝내 고수하려는, 혹은 끝내 고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이광수의 욕망이다. 이때 순옥을 엄격한 생활의 방식을 고수하는 안식교의 신도로서, 즉 도산을 환유하는 기호를 통해 설정한 것은 1938년 도산의 사망 이후 이 시기 이광수가 정치적·내면적 위기에 시달리면서도 끝내 지키거나, 혹은 지킨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짐작하게끔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첨언할 것은 자신의 욕망을 통제해나가는 청교도적인 생활방식은 물론, 이룰테면 “순옥씨가 내 하나님”이라는 허영의 고

96) 후편, 32~33면.

백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불라쓰피머스!”(blasphemous: 신성모독)<sup>97)</sup>라는 말로 응답하거나 혹은 “시편 이십삼편”을 책을 보지 않고 바로 논할 수 있는<sup>98)</sup> 기독교적인 교양과 발화의 방식들을 포함하는 순옥의 기독교적 아버투스가 소설 전반에 걸쳐 안빈과 옥남, 순옥과 인원 모두에게 견고하게 유지된다는 점이다. 범화행자를 자처하는 안빈의 주변 인물이 모두 기독교인인 것은 재미있는 점인데, 옥남의 사망과 순옥의 결혼 이후 안빈이 세 자식을 돌볼 보모를 “천주교당에랑 다른 교회에랑 염탐을”<sup>99)</sup>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는 사실 안빈 스스로에 의해 유발된 상황이기도 하다.

에필로그에서 『사랑』은 안빈이 건립한 ‘북한요양원’에 주요 인물들이 다시 모이는 광경을 그린다. 이때 북한요양원은 순옥과 안빈의 감화를 받아 자신의 욕망을 엄격히 통제하는 생활의 윤리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념적 공동체이자, 이를 바탕으로 병자의 치유를 자신의 유일한 의무로 여기게 된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간이다. 때문에 북한요양원에서 수양동우회의 그림자를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사랑』은 무엇보다 먼저 이러한 견고한 자기동일성의 유지에 대한 이야기이며, 이때 안식교라는, 도산의 주변에 놓인 기호가 전면에 배치되는 것은 『사랑』을 통해 이광수가 유지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추측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이다.

그러나 이러한 ‘도산적인 것’, 즉 순옥의 자기동일성이 유지되기 위해, ‘도산적인 것의 재배치’, 즉 도산이 아닌 안빈/춘원의 독자적인 사상 아래, 안빈이 아닌 허영과 결혼한다는 순옥의 역설적인 선택 및 희생을 정당화하는 복잡한 과정과 논리를 마련해야 했다는 것은 1938년 도산 사후 이광수의 정치적·내면적 위기 및 그러한 상황에서도 고수하려고 한 ‘도산적

97) 전편, 92면.

98) 위의 책, 52면.

99) 후편, 5면.

인 것'의 유지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앞에서 살펴본 최주환의 지적대로, 이러한 역설적 선택과 희생의 제시 및 그 정당화는, 이광수 스스로 이야기하듯이 “동우회의 사업과 동지들을” 살릴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나 하나를 희생”하겠다는 이광수의 전향 논리,<sup>100</sup> 즉 ‘도산적인 것’의 최소한의 유지를 위한 전향에 대한 고민과 이어져 있는 것이기도 하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광수는 『사랑』에서 소위 ‘범화경의 사상’, 즉 이광수 자신의 불교 사상과 순옥의 안식교도로서의 윤리와 생활 방식을 마주치게 함으로써 순옥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서사적 논리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이는 『사랑』에서 이루어진 ‘도산적인 것’의 재배치 과정의 가장 결정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순옥의 몸에서 아우라몬이 검출된 사실이 이야기의 전개 과정에서 순옥이 달성해야 할 목표를 지시한다면, 순옥의 몸에서 아우라몬이 검출되기까지의 과정은 그 목표의 달성 방법을 지시한다. 이때 그 핵심은 아우라몬이 타인의 고통을 직시하며, 이를 안타깝게 여기며 구제하려는 마음과 이어져 있다는 점이다. 관점에 따라서는 1937~1938년의 식민지 조선 사회에 만연한 고통의 알레고리로도 읽을 수 있을 텐데, 이러한 관점에서 안빈의 혈액시험 과정에서 눈여겨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실험대상이 되는 동물들의 고통에 대한 묘사이다.

안빈의 슬픔의 실험에 첫 기회를 제공한것은 새끼 아홉마리를 낳은 조선 재래종의 개였다. 개중에 새끼에게 대한 애정이 가장 많기로 조선 개가 으뜸이라는 말을 들은 안빈은 특별히 조선 재래종인 암개를 실험용으로 택한것이다. …(중략)… 새끼가 난지 사오일쯤 지나서 새끼 아홉마리 중에 한마리를 감추었더니 어미개는 한참이나 슬픈소리를 하며 헤매었고 그 이튿날 새끼 한마리만을 남겨놓고 여덟마리를 감추었을 때에는 어미개의 슬퍼하는 양은 찾아 볼수가 없었다. 입과 앞발로 땅바닥을 후비고

100) 이광수, 「나의 고백」, 앞의 책, 274면.



지는소리 끄끄대는 소리는 애통 그 물건인듯 하였다. 그가 미친개모양으로 꼬리를 축느리고 애원하는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눈에는 눈물조차 어린것 같았다.<sup>101)</sup>

순옥이 안빈에게 처음 혈액을 제공한 것은 바로 이 어미개를 이용한 실험을 본 직후였다. 그러나 이때 순옥의 혈액에서 검출되는 것은 아직 아모로젠이었으며, 순옥의 아우라몬은 그 이후 순옥이 허영을 만나 그의 사랑을 거절한 뒤, 그를 측은히 여기며 그를 잠깐 안은 직후의 피에서 처음으로 나타난다. 순옥이 아우라몬을 얻는 이러한 과정은 다소 복잡하지만, 거칠게 정리한다면 허영이라는 번민하는 중생을 측은히 여기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때, 허영에게 안긴다는 육체적 접촉에도 불구하고 아우라몬이 나타나는 것이다. 소설은 정확히 이 지점에서부터 자비심을 바탕으로 번민에 휩싸인 중생을 구제한다는 “『법화경』의 대승적 자비”<sup>102)</sup>의 논리와 결합된다.

이러한 아우라몬의 생성 과정에 있어서는 다시 두 가지 점이 중요하다. 하나는 아우라몬이 어미개의 슬픔을 본 순옥의 피, 즉 타인의 고통을 단순히 감각하는 것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며, 번민과 고통에 휩싸인 허영을 안는 행위가 이루어진 뒤의 피, 다시 말해 그러한 고통과 번민을 구제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행위 속에서 나타난다는 점이며,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순옥의 아우라몬은 처음부터 허영과의 관계 속에서만 형성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작품에서 순옥의 자기동일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한, 이미 순옥의 피에서 아우라몬이 검출된 순간부터 허영과 순옥의 결혼은,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순옥의 수난사는 예정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사랑』에서는 순옥의 자기동일성·도산적인

101) 전편, 70면.

102) 방민호, 앞의 글, 119면.

것'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서 순옥의 역설적 선택을 정당화하는 최소한의 서사적 논리가 마련됨에도 불구하고 이광수가 여전히 허영과 순옥의 결혼을 정당화하는 것에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은 『사랑』을 집필하던 시기의 이광수의 내면적 혼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순옥과 허영이 결혼을 하는 이유는 대체로 인물들 사이의 대화, 특히 인원과 순옥, 인원과 안빈 사이의 대화에서 드러나는데, 이러한 대화는 상당히 혼란스러우며, 또한 모순적 내용이 없지 않다. 이를테면 허영과 결혼을 하겠다는 순옥의 선택이 운명의 수동적 수용인지, 의지의 능동적 발현인지는 매우 애매하다. 이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의 서술과정 자체에서 혼란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다음의 두 대화 장면을 보자.

『어떻게는구허니이. 첫째는 순옥이가 안선생 허구 혼인하는 것이구. 그것이 원형리정이어든 만일 그것이 안 되겠거든 지금 모양으루 가만 있으라구. 그래서 운명이 끄는 대루 허란 말야. 사람이란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어든.』

『운명이나 환경에 끌리구 싶지 않단 말이지. 그리고 제 이성의 명령대로 살아 나가 보잔 말이지, 언니.』

『글쎄, 그제, 안선생 말 마따나, 성인의 일이지, 범부의 일이나 말야?』<sup>103)</sup>

『나두 그렇지. 순옥이가 우는 것을 보니깐 그렇게 설음이 복 받혀 오르는구면. 어찌 모두들 들러 붙어서 순옥이를 가기 싫다는 데루 억지루 끌어 넣는 것만 같단 말이야.』

『언니, 인제는 그런 말은 말아요. 내 운명은 벌써 결정이 된 것을.』

『글쎄. 그것이 알 수 없는 일 아니냐 말이야. 왜 사랑하는 사람 곁에는

103) 전편, 367면.

있지를 못 하고 원치 않는 사람한테루 아니 가면 아니 되느냐 말이야?』  
 『그게 참 이상해, 언니, 허영이란 사람이 십년 전 부터 그렇게 싫으면 서두-싫다 싫다 허면서두 작구만 그리루 끌려 가는 구려, 언니. 그게 아  
 마 인연의 힘이라는 것인가 보아.』<sup>104)</sup>

이 대목에서 읽어야 하는 것은 운명과 이성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에 대한 순옥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점이 아니라, ‘운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순옥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전자의 인용문의 경우 허영과 결혼하지 않는 것이 ‘운명’이고, 허영과 결혼하는 것이 ‘이성’, 즉 의식적 선택이라면 후자의 인용문의 경우 양자가 뒤바뀌어 있기 때문이다. 안식교가 도산에 대한 환유적 기호이며, 때문에 『사랑』이 ‘도산적인 것’의 최소한의 유지를 위한 ‘전향’의 가능성에 대한 이광수의 고민과 연관된 작품이라고 보았을 때, 바로 이 대목에서 1938년 당시 이광수의 내면적 혼란을 엿볼 수 있다. 전향을 ‘국가의 강제력’(=운명)과 ‘그러한 압력에 대한 스스로의 선택’(=이성) 사이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상적 변화라고 본다면,<sup>105)</sup> 순옥의 선택을 ‘운명’에의 순응’과 ‘이성의 명령’ 중 어느 쪽으로 서술해야 하는지 망설이고 있는 이광수의 태도는 이 시기 모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전향에 대한 고민 과정에서 이광수가 느끼는 혼란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광수는 여기에 세 가지 정도의 문제를 더 고려하며 순옥과 허영의 결연 동기 및 순옥의 회생적 행위에 대한 서술을 진행해나간다. 그 첫 번째는 위의 두 번째 인용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순옥의 선택이 그의 주변인들에 의해 억지로 떠밀려 이루어진 것일지 모른다는 의구심이며, 두 번째는 순옥과 안빈의 관계에 대해 허영이 만들어낸 악의적 루머에 의해 만들어진 순옥과 안빈에 대한 세간의 비난이며, 마지막 하나는 허영이 순

104) 후편, 50면.

105) 쓰루미 슌스케, 최영호 역, 『전향』, 논형, 2005, 33면.

옥의 재정적 지원으로 생활을 영위해나가면서도 순옥을 속이고 귀족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순옥이 안빈에게 토로한 “정성껏 그들을 위해서 애를 쓰는 데 그것을 알아 주지”<sup>106)</sup> 않는다는 생각이다. 이 세 가지 문제 중 처음 두 가지를 자신의 전향에 대한 세간의 해석 혹은 비난으로, 마지막 문제를 다시 그러한 세평에 대한 춘원 자신의 심리적 반응으로 읽는 것은 어렵지 않다.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도 『사랑』은 전향에 대한 이광수의 고민이 매우 깊게 투영되어 있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문제는 이러한 순옥의 행동이 운명의 수동적 수용인지, 아니면 이성적이고 실천적인 의지인지, 순옥의 행동을 추동하는 서사적 논리가 여전히 분명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련하여 작품의 전편과 후편을 나누는 하나의 죽음, 옥남의 죽음이라는 사건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자신의 연적일 수도 있었던 순옥에게 감사를 표하고, 찬미가를 부르며 죽음을 맞이하는 옥남의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이다. 이때 옥남의 죽음이 목전에 다가온 것, 즉 옥남이 위독한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은 순옥이 허영과의 결혼을 생각하게 된 최초의 동기이다. 즉 순옥이 허영과의 결혼을 최초로 떠올린 것은 “사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선생님 허구 혼인 아니한다는 것”<sup>107)</sup>을 옥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이 경우 고려되는 것은 허영에 의해 만들어진 순옥과 안빈의 관계에 대한 세간의 악평이며, 이때 허영과의 결혼에 대한 순옥의 선택은 옥남과의 관계 속에서 사고되고 실행된다. 그러나 옥남은 순옥의 결혼을 보지 못하고 죽으며, 이 시점에서 결혼에 대한 순옥의 선택 기준과 결혼의 의미는 뒤바뀐다. 이전의 순옥의 선택이 자신의 결백함을 알아주는 이해자로서의 옥남의 이름을 빌려 이루어졌다면 옥남의 죽음 이후 순옥의 선택은 온전히 순옥의 책임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옥남의 죽음 전후를 기준으로 이루어진 순옥의 결단의 조건 및 의미

106) 후편, 319면.

107) 전편, 353면.

변화는 이러한 점에서 도산의 죽음 전후 이광수의 결단의 조건 및 의미가 변화한 상황과 동일하다. 따라서 옥남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소설 전후편을 나누는 기준점으로 배치되고 ‘허영과 순옥의 결혼은 타당한가?’에 대한 인물들의 대화가 양쪽 모두에 배치되는 것에서 또한 이 시기 이광수가 해야만 했던 고민의 복잡한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옥남을 죽음의 저쪽으로 보낸 뒤 남은 사람들은 어떠한 길을 밟으라는고? 그것을 옥남은 못 보고 갔다.”<sup>108)</sup> 도산의 죽음 이후 똑 같은 질문이 제기된다. 『사랑』은 안식교도 순옥이 체현하는 ‘도산적인 것’을 안빈의 사상 속에 재배치함으로써 이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그 서사적 논리는 사실 적지 않은 혼란스러움을 수반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잘 알려져 있지만, 이러한 고민들의 귀결점에서 이광수는 소위 ‘법화경의 사상’을 통해 이러한 혼란을 해결하려고 한다. 기존의 논의에서 충분히 지적된 것이지만, 이는 인연론을 통하여 허영과 순옥의 관계의 필연성을 입증하는 한편, 허영의 끊임없는 배반에도 허영을 보호하고 치유하려는 안식교도 순옥의 순교자적인 삶을 고통에 시달리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자비의 원리’로서 의미화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사상에다가 석가의 사상을 거친 제3사상이 말하자면 나의 사상”<sup>109)</sup>이라는 이광수의 생각은 이미 그 이전부터 지속되어왔던 것으로, 때문에 이러한 불교적 사유를 단순히 편의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사랑』에 개입된 이광수의 불교적 사유는 특히 중일전쟁 발발 직후 식민지 조선의 상황을 염두에 둘 때, 세계에 만연한 고통들을 직시하며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실천을 통하여 그러한 고통을 구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다. 그러한 의지는 심지어 끔찍하게 싫어하는 허영과의 결혼 생활조차도 감내해내려 하는 순옥의 자기희생적 사랑의 모습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적어도 도산의 사후, 이광수는 안식교도 순옥의 ‘아우라몬’으로 표상되는 ‘도산적인 것’의

108) 위의 책, 486면.

109) 「이광수씨와 기독교를 어함」, 『삼천리』 4(1), 1932.1, 67면.

자기동일성이 유지되기 위해 이러한 역설적인 불교적 사유와 결합된 자기희생적 혹은 자기배반적인 실천, 즉 ‘전향’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랑』에 나타난 이러한 사유는 특히 허영과 순옥의 결연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작품에 드러난 혼란과 고민, 즉 동우회의 대표라는 공적 주체로서의 의무와 이광수라는 사적 주체의 욕망 사이의 갈등, 정치적 행보의 변화에 대한 세간의 반응, 자신의 실천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무력감과 고립감과 같은 것들에 대한 명쾌하면서도 현실적인 해답으로 기능하지 못했던 듯하다. 무엇보다도 『사랑』의 이러한 사유는 순옥의 선택 과정에, 혹은 이광수의 정치적 진로의 고민 과정에 주어진 ‘운명’과 ‘의지’ 사이의 갈등을 관념적으로 봉합함으로써 일제 말기 파시즘의 폭압성과 그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의 논리를 고통스럽게 사유할 수 있는 능력 자체의 소실을 보여주는 측면도 없지 않다. 『사랑』의 도저한 관념성이 이를 잘 드러내며, 또한 이광수가 1년 뒤 「난제오」를, 3년 뒤 「원효대사」를 쓰며 분열적인 자아상을 여지없이 드러내야 했다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이 이광수의 전향 과정을 논의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작품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그렇다고 이 작품에서 1939년 이후 이광수의 행적을 그대로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이광수가 도산의 주변으로부터 형성된 안식교라는 기호를 작품의 전면에 배치하면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도산적인 것’의 자기동일성이 정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이 과정에서 1938년의 이광수가 전향에 대해 고민하면서 가질 수밖에 없었던 내면적인 혼란들은 여실히 드러난다. 안빈이 펼치는 불교적 인연론과 자비의 사상은 이러한 혼란들을 봉합하지만, 실상 이러한 혼란들을 해결하기 위한 논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기보다는, ‘도산적인 것’의 자기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혼란 자체를 주변화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사랑』

은 이점에서 ‘도산적인 것’의 자기동일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작가의 완강한 입장을 보여주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역설적으로 작가의 전향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암시해주기도 한다. 허영의 구제를 위해 그와 결혼하는 것을 감내할 수 있다는 작가의 논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어떤 것도 감내할 수 있다는 식으로 확장되었다. 이 점에서 이는 결국 ‘민족의 보존을 위한 친일’이라는 이광수의 전향 논리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 이후 이광수의 행적을 통해 현실화된다.

『사랑』의 이러한 의미와 한계는 사실은 도산이 살해당한 1938년 식민지 조선의 정치적 상황에서 ‘도산적인 것’을 유지하고 실현해나가려는 이광수의 노력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는지를 보여준다. 물론 이는 작중 ‘도산적인 것’의 형상을 결국 안식교라는 도산의 환유를 통해 제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자체에서 예견되어 있었던 것이기도 하다.

#### 4. 결론을 대신하여: 『사랑』과 『도산 안창호』

이 글은 『사랑』에 나타난 안식교를 도산의 주변에 놓여 있던, 도산을 환유하는 기호로 바라보며, 이러한 관점에서 『사랑』의 플롯을 다시 읽음으로써 특히 도산 사후 1938년의 이광수에게 주어진 정치적 진로에 관한 고민과 관련하여 『사랑』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제시하려고 하였다. 글의 핵심적인 주장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다. ①서북 지방의 애국계몽 운동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진 한국 안식교의 초기 전파 과정과 이광수의 안식교 체험이 이루어진 경로를 생각할 때, 『사랑』에 나타난 안식교라는 기호는 도산을 환유하는 기호라는 점, ②『사랑』은 도산의 사후 ‘도산적인 것’의 유지 가능성을 제시하려는 이광수의 필사적인 노력의 산물로서, 이광수는 『사랑』에서 도산의 환유로서의 안식교도 순육을 통해 제시되는 ‘도산적인 것’을 도산이 아닌 춘원 자신의 사상 아래 재배치함으로써 ‘도

산적인 것'의 최소한의 유지 가능성을 모색했다는 점 ③그럼에도 『사랑』은 바로 '도산적인 것'의 자기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모색되어야만 했던 전향에 대한 이광수의 내면적 혼란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사랑』이 가지는 이런저런 한계와 『사랑』에 여실히 노출되는 이광수 자신의 내면적인 혼란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안식교도 순옥의 형상을 통해 '도산적인 것'을 재배치함으로써 1938년이라는 위태로운 정세에서 이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서사적인 논리로 구축한 작품이다. 물론 이를 위한 재배치는 1938년 이광수에 의한 '도산적인 것'의 재구성 과정을 포함한다. 해방 이후 반민족행위자로서 다시 한 번 정치적 곤경에 처한 이광수가 1947년에 쓴 도산의 전기 『도산 안창호』는 이 점에서 『사랑』의 집필 시기에 이루어진 '도산적인 것'에 대한 이광수의 해석이 해방 이후에도 완강히 반복되는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도산 안창호』는 적어도 도산 사상의 특징을 해설하는 후반부 '국민훈련편'의 경우, 『사랑』과 여러 유사점을 보여준다. 이를테면 『도산 안창호』에서 이광수가 설명하는 도산 사상의 최종적인 귀결점은 다름 아닌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사랑'에 있다.

도산의 판단에 의하면 민족 상호간의 간섭과 무력 투쟁은 이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반인류적이었다./ 부부간의 복락을 결정하는 것이 사랑인것 같이, 한 단체나 한 민족의 번창을 초래하는 것이 사랑인 것과 같이, 세계의 평화의 원인이요 유일한 원인은 오직 사랑이다. / 공자께서 인을 가르치시고 석가께서 자비를 설하시고 예수께서 사랑을 이르심이 진실로 우연이 아니니 사람의 바른 길은 오직 사랑이요 그 밖에는 없다.<sup>110)</sup>

위 인용문에서, '공자', '석가', '예수'가 언급되어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광수가 파악하는 도산사상의 귀결점으로서의 '사랑'은 특히 기

110) 이광수, 「도산 안창호」, 앞의 책, 216-217면.



독교가 제시하는 사랑의 윤리와 매우 유사한 것이기는 하지만, 신학으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인용문과 같이 도산 자신의 사상적 맥락 아래에서 다시 구축된 것으로 이해된다.

인류 전체에 대하여서도 도산은 오직 서로 사랑함만이 평화를 가져 올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다. …(중략)… 얼른 보기에 이것은 기독교 사상인 것 같고 그중에서도 톨스토이의 무저항주의인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일찍 성경의 어구를 인용하는 일은 없었다. 그는 가끔 예배당에를 갔으나 기독교 신도라고 자처한 일은 없었다. 예수를 고마우시고 크신 선생님이 라고 평할 뿐이요, 십자가의 공로로 속죄한다 하는 신학을 믿지는 아니하였다. 그는 자기의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할 것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의 사랑론과 화평론도 그가 스스로 생각해 내고 스스로 믿는 것이 지 누구의 설이나 어느 신앙에 의거한 것은 아니었다.<sup>111)</sup>

1938년 도산의 죽음이라는 상황 아래에서 『사랑』이 하고 있는 일, 다시 말해 경건하고 청정한 생활의 방식만을 남기고 신앙을 잃어버린 안식교도 순옥의 삶을 안빈/춘원의 법화경적인 자비의 사상 아래에서 다시금 ‘사랑’의 길로 인도하는 서사적 논리의 구축은 적어도 이광수에게 있어 도산 사상의 핵심으로 간주된 ‘사랑’의 실천적 논리를 구축하는 일이다. 작중 안식교도 순옥은 교사에서 간호사가 된 뒤, 안빈의 지도를 받아 의사가 되고, 허영과 결혼하여 허영을 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한 뒤, 다시 안빈의 곁으로 돌아온다. 『사랑』에 나타난 이러한 순옥의 행적을 감안할 때, 『도산 안창호』에서 인용된 다음과 같은 도산이 제시하는 실천적 지침은 어찌면 『사랑』에서 먼저 쓰인 것일지도 모른다.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러하거든 먼저 그대가 건전한 인격이 되

111) 위의 글, 203-204면.

라. 중생의 절고를 어여뻐 여기거든 그대가 먼저 의사가 되라. 의사까지는 못 되더라도 그대의 병부터 고쳐서 건전한 사람이 되라.<sup>112)</sup>

실제로 안창호가 1933년에 감옥에서 보낸 한 사신(私信)에서 '사랑'이라는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sup>113)</sup>에서 도산 사상의 귀결점을 '사랑'이라는 가치로 정리하는 이광수의 이러한 해석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도산 안창호』에 나타난 도산에 대한 춘원의 관점이 '홍사단 운동'을 중심으로 한 '도덕적 수양운동의 일면적 강조'에 국한<sup>114)</sup>되어, 본디 혁명적 민족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도산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많은 오해를 유발했다는 비판<sup>115)</sup>을 고려한다면, 『사랑』에서 환유적으로 나타나며, 『도산 안창호』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도산적인 것'은 도산으로부터 직접 연유한 것이 아니라, 이광수에 의해 매개되고 재구성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는 있다.

『사랑』의 논리와 『도산 안창호』의 논리가 부분적으로 이어져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결론적으로 말해 『사랑』은 도산 사상에 대한 이광수의 재구성 작업의 일환에 놓여 있는 작품이다. 물론 이는 홍사단의 국내 조직으로서의 동우회를 이끌었던 이광수가 「선도자」를 쓰던 시절부터 줄기차게 시도해왔던 작업이지만, 『사랑』은 1938년 도산의 죽음과 동우회

112) 위의 글, 168면.

113) "오직 **사랑** 뿐입니다 **사랑** 이것이 인생의 밝아나아갈 최고진리입니다 인생의 모든 행복은 인류간 화평에서 나오고 화평은 사랑에서 나는 재문입니다 ... (중략)... 「사랑」을 최고진리로 밋고 사랑을 실행하는 사람의 사랑으로 인하여 가정이나 사회에 화평의 행복이 촉진될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정 보다 먼저 사회보다 먼저 사랑을 밋고 사랑을 품고 사랑을 행하는 그 사람 자신의 마음이 비상한 화평 등에 잇슴으로 남이 헤아리지 못할 무상한 행복을 맛을 것입니다"(安昌浩 → 이해련(1933.6.1)) (서신번호: 2-107), 도산안창호전집편찬위원회 편, 『도산 안창호전집』 1권, 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 665-666면. 인용 중 굵게 표시한 부분은 실제 서신에서 표점을 찍어 강조하고 있는 부분임)

114) 박만규, 「이광수의 안창호 이해와 그 문제점 - 『도산 안창호』를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69, 호남사학회, 2018, 281~285면.

115) 김삼웅, 앞의 책, 19면; 신용하, 앞의 책, 5면.

사건이라는 결정적 위기의 국면에서, 특히 전향에의 결심과 결부되어 진행된 최종적 작업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도산적인 것’을 환유하는 안식교라는 ‘환유’이기 때문에 해석하기 곤란한 기호를 활용하여 소설의 서사를 전개하고 있는 것 또한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도산적인 것’을 자신의 관점에서 재구축하기 위한 이광수의 시도와 긴밀하게 관련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특히 이광수에게 있어 안식교는 분명 도산의 주변에 놓여있었던, 도산을 환유할 수 있는 기호였지만, 도산의 환유가 될 수 있는 많은 기호<sup>116)</sup> 중 금욕적이고 경건한 생활 방식을 통해, 이광수가 바라본 도산 자신의 생활 방식이기도 했던 “고행 수련의 자취”<sup>117)</sup>와 상통하는 ‘안식교’라는 기호가 선택된 것은 이 시기 이루어진 ‘도산적인 것’에 대한 이광수의 재구성 작업이 가진 중요한 특징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안식교도 순옥의 이러한 특성을 포함하여, 안빈의 지도 아래 안식교도 순옥의 자기동일성을 끊임없이 유지해나가면서도, 순옥을 ‘사랑’의 실천으로 인도하는 『사랑』의 서사 전체는 이 시기 이광수가 전향을 전제로 하여 자신을 중심으로 재구성하려 했던 ‘도산적인 것’의 논리와 원리를 드러낸다.

이 점에서 『사랑』에 나타난 안식교라는 환유적 기호는 이광수라는 한국문학 최대의 작가가 일제말 파시즘 체제의 가혹한 정치적·문화적 억압 속에서도 최후까지 지키고 싶어 했던 어떤 영역을 보여준다. 이는 물론 ‘도산적인 것’에 대한 이광수 나름의 자의적인 재구성을 수반하는 것이지만, 이 글은 이를 분명한 ‘한계’로 칭할 만한 식견이나 확신을 갖추지 못했다. 다만 이 글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범화경의 논리로 봉합되는 『사랑』의 서사가, 그 구체적인 서술의 과정에서 이광수 자신의 번민과 직

116) 이틀테면 박태원의 「낙조」, 「최노인전초록」과 같은 작품에 나타나는 ‘형무소’가 당시 수감 중이던 안창호를 환기한다는 지적 등에서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권은, 「경성 모더니즘과 공간적 역사」, 『구보학보』 5, 구보학회, 2010, 60-66면)

117) 이광수, 「도산 안창호」, 앞의 글, 165면.

결되는 적지 않은 혼란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이광수의 서사적 논리는 『사랑』 이후, 즉 전향 이후에도 끊임없이 다시 모색될 수밖에 없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의 작업을 기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이광수, 『사랑』 전편(9판), 박문서관, 1941.  
이광수, 『사랑』 후편, 박문서관, 1939.  
이광수, 『이광수 전집』 7권(2판), 삼중당, 1976.  
이광수, 『이광수전집』 9권(2판), 삼중당, 1976

2. 단행본

- 김삼웅, 『투사와 신사 안창호 평전』, 현암사, 2013.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2권, 솔, 1999.  
도산안창호선생전집편찬위원회 편, 『도산안창호전집』 1, 10권, 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 2000.  
이영린, 『한국재림교회사』, 시조사, 1965.  
장규식, 『일제하 한국 기독교민족주의 연구』, 해안, 2001.  
주요한, 『안도산전서』, 삼중당, 1971.  
최주한, 『제국 권력예의 야만과 반감 사이에서』, 소명출판, 2005.  
한석희, 김승태 역, 『일제의 종교침략사』, 기독교문사, 1990.  
로만 야콥슨, 신문수 편역, 『문학 속의 언어학』, 문학과지성사, 1989.  
쓰루미 슌스케, 최영호 역, 『진향』, 논형, 2005.

3. 논문

- 권보드레, 「저개발의 멜로, 저개발의 숭고」, 『상허학보』, 상허학회, 2013, 279~320면.  
권은, 「경성 모더니즘과 공간적 역사」, 『구보학보』 5, 구보학회, 2010, 41~72면.  
권희주·성윤아, 「진시하의 만화콘텐츠와 만몽개척」, 『한일군사문화연구』 23, 한일군사문화학회, 2017, 421~439면.  
김동인, 「春園과 사랑」, 『박문』 3, 박문서관, 1938.12.  
김문집, 「再生李光洙論」, 『문장』, 문장사, 1939.5.  
민병진, 「일제강점기 민족운동 고찰」, 『춘원연구학보』 9, 춘원연구학회, 2016, 319~385면.  
박만규, 「이광수의 안창호 이해와 그 문제점 - 『도산 안창호』를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69, 호남사학회, 2018, 279-303면.

- 박윤재, 「김창세의 생애와 공중위생 활동」, 『醫史學』 15(2), 대한의사학회, 2006, 211~225면.
- 방민호, 「이광수 장편소설 『사랑』에 나타난 종교 통합적 논리의 의미」, 『춘원연구학보』 2, 춘원연구학회, 2009.12, 103~138면.
- 서은혜, 「이광수의 소설의 '사랑' 형상화와 자전적 언술행위」, 『구보학보』 13, 구보학회, 257~306면.
- 서은혜, 「이광수 소설의 '암시된 저자'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송명희, 「이광수의 기독교 사상과 종교적 다원주의」, 『한국문학논총』 46, 한국문학회, 2007, 399~430면.
- 와다 토모미, 「이광수 소설의 '생명'의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윤홍로, 「『사랑』과 병의 치유」, 『춘원연구학보』 5, 춘원연구학회, 2012, 15~93면.
- 이경훈, 「인체 실험과 성전」, 『동방학지』 117,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2, 205~243면.
- 이국현, 「한국 근현대사에서 채립교회 선교병원의 역할과 의의」, 『신학논단』 68,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2012, 121~146면.
- 이종근, 「민족계몽과 독립운동의 선구자 근당 임기반 재조명」, 『도산사상연구』 7, 도산사상연구회, 2001, 229~248면.
- 정진원, 「춘원 이광수의 소설 〈사랑〉의 불교적 상호텍스트성」, 『텍스트언어학』 20,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06, 425~462면.
- 최주한, 「이광수의 불교와 진일」, 『춘원연구학보』 2, 춘원연구학회, 2009, 139~164면.
- 최주한, 「『사랑』(1938), 또 하나의 진향서」, 『춘원연구학보』 13, 춘원연구학회, 2018, 177~202면.
- 토머스 라마, 김계원 역, 「전시기 애니메이션에서 동물로 번역된 인종」, 『문화과학』 93, 2018, 294~323면.

#### 4. 기타

「건학100년사」, 삼육대학교

(<https://www.syu.ac.kr/about-sahmyook/history-vision/history>).

「독립유공자 공적조서: 김창세」(관리번호: 80118), 공훈전자자료관

(<https://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DetailPopup.do?goToCode=0&mngNo=80118&kwd=%EA%B9%80%EC%B0%BD%EC%84%B8>)

「독립유공자 공적조서: 임기반」(관리번호: 72564), 공훈전자자료관

(<https://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DetailPopup.do?goToCode=0>)

&mngNo=72564&kwcd=%EC%9E%84%EA%B8%B0%EB%B0%98)

「무슴즈유」, 『대한매일신보』, 1910.8.7.

「스천여명입회」, 『대한매일신보』, 1910.8.27.

「新入會員氏名 第三回」, 『서우』 3, 1907.2.

「이광수씨와 기독교를 어함」, 『삼천리』 4(1), 1932.1.

「李光洙氏의戀愛觀, 至高한 부처님 사랑의境地에까지」, 『삼천리』 10(12), 삼천리사, 1938.12.

「會報」, 『서우』 16, 1908.3.

안창호, 「比律賓視察記」, 『삼천리』 5(3), 1933.3.

「在北京鮮人獨立青年團組織計劃者檢舉ニ関スル件」, 陸軍省, 1920.3.26.

<Abstract>

## *Love* and Seventh-day Adventist Church

Yoo, Sunghwan

This article examined Seventh-day Adventist Church that appeared in *Love* as a sign of metonymy for Ahn, Chang-ho and tried to suggest the meaning of *Love* by re-reading the plot of *Love* from this point of view, especially in relation to Yi, Gwang-soo's conversion in 1938 after the death of Ahn. At first, this article reviewed the process of early movement of Korean Seventh-day Adventist Church through the patriotic enlightenment movement network in the northwestern region and Lee Kwang-soo's Seventh-day Adventist Church experience during the Shanghai Provisional Government. Through this, this article clarified that the 'Seventh-day Adventist Church' that appeared in *Love* is a sign that metonymizes Ahn, Chang-ho. From this point of view, *Love* is a work that rearranges the 'things that evoke Ahn Chang-ho', which is presented through the Adventist Sun-ok as a metonymy for Ahn, because of seeking the minimum maintainability of 'things that evoke Ahn Chang-ho'. But at the same time, *Love* clearly reveals Yi, Gwang-soo's inner confusion in this process. This also shows the complexity of Yi, Gwang-soo's concerns about the conversion he had after Ahn Chang-ho's death.

Key words: Yi, Gwang-soo, *Love*, Seventh-day Adventist Church, Ahn, Chang-ho, metonymy, conversion



투 고 일: 2021년 8월 31일

심 사 일: 2021년 9월 13일

게재확정일: 2021년 9월 14일

수정마감일: 2021년 9월 23일